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아동가족학박사 학위논문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적응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양 경 선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적응과정

지도교수 **Grace H. Chung**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양 경 선

양경선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진 미 정 (인)

부위원장 이 재 림 (인)

위 원 김 창 대 (인)

위 원 배 희 분 (인)

위 원 Grace H. Chung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적응과정을 어머니의 모니터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이론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부모의 건강한 변화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의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적응과정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들은 사적영역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모니터링 방식과 충돌했고, 어머니-자녀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모니터링 변화는 이러한 자녀와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됐다. 연구참여자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모니터링을 변화시켰다.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돌려서 묻거나 몰래 살피고 모르는 척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며, 구조화된 환경을 활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조화된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또,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었으며,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셋째, 모니터링의 변화라는 대응의 결과는 연구참여자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니터링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관계에 진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의 기준을 강요하기”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엄마의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하여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자녀의 공부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좌절을 경험하고 강요 멈추기” 유형은 특히 공부 영역에서 자녀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만 강요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관계만 악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을 경험하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교육은 어머니들이 보다 수월하게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돕는 요인이었으며,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주요범주를 아우르는 핵심범주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갈등에서 관계의 변화로 나아가기”임을 발견하였다. 자녀의 발달적 변화와 자녀와의 갈등은 모니터링 변화라는 양육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모니터링 변화가 자녀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이 높아지는 등 관계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모니터링 변화가 갈등을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과점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로부터 개별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한국 어머니들의 청소년 자녀 모니터링과 자율성지지 양육행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청소년기 자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구체적인 모니터링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 자녀 모니터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다섯째, 국내에서 모니터링 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 척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여섯째,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한 실제적인 모니터링 팁을 구성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모니터링 변화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한

국사회의 부모자녀 동일체 의식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지위가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이 연구가 자발적 연구참여를 기반으로 하기에 적극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참여자들만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부모의 모니터링,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녀,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적응, 근거이론
학 번: 2015-31159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Ⅱ. 연구배경 ····· 6
1. 청소년기 가족의 변화 ····· 6
1) 이론적 관점: 가족발달이론 ····· 6
2)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변화와 부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행동 10
2.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 16
1) 부모의 모니터링 개념 ····· 16
2)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 20
3)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5

Ⅲ. 연구방법 ····· 31
1. 근거이론방법 ····· 31
2. 자료의 수집 ····· 32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모집 ····· 32
2) 심층면접 ····· 38
3. 자료의 분석 ····· 40

Ⅳ. 연구결과 ····· 45
1. 자녀를 품 안에 두고 싶은 엄마와 자율성 욕구가 증가하는 자녀 47
1) 내 맘대로 안 되는 아이 ····· 47
2) 잔소리하는 엄마와 대드는 아이 ····· 51
2. 갈등은 피하고 자녀는 살피기 위한 엄마의 대응 ····· 58
1) 몰래 살피고 모르는 척 하기 ····· 59
2) 구조화된 환경 활용하기 ····· 65
3) 소재와 귀가시간은 변함없이 체크하기 ····· 68
4) 자녀의 공부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마음 ····· 73
3. 대응의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엄마의 관점 ····· 76
1)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 77
2) 엄마의 기준을 강요하기: 자녀를 놓지 못하겠어요 ····· 80
3) 좌절을 경험하고 강요 멈추기: 강요해봤자, 관계만 악화될 뿐 83
4. 핵심범주 ····· 88

Ⅳ. 결론 및 논의 ····· 91
1. 연구결과 요약 ····· 91
2. 논의 및 제언 ····· 93

참고문헌 ····· 107
[부록1] 면접 지침 ····· 125
[부록2] 인구사회학적 정보 조사 양식 ····· 127
[부록3]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 130
[부록4]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 134
Abstract ····· 135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37
[표 2] 축코딩 일부 예시 ····· 44

그림 목차

[그림 1] 분석의 중간단계에서 그린 도표의 예 ····· 42
[그림 2] 분석결과의 통합적 모형 ····· 90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자녀를 살피기 위한 양육행동인 모니터링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이론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과 사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어머니의 적응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청소년기 부모의 건강한 변화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부모는 누구나 자신의 자녀에 대해 알고 싶어하며 알기 위해 힘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자녀를 늘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과 행동을 담은 개념이 바로 부모의 모니터링이다. 부모의 모니터링은 부모가 자녀의 소재, 활동, 적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추적하는 것과 관련된 양육행동(Dishion & McMahon, 1998)으로, 자녀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취하는 부모의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적절히 개입하여 양육하는 것은 자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은 모든 양육행동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부모의 모니터링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게 하고 안정감을 제공한다(Lee & Randolph, 2015). 또한,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휴대폰 의존, 그리고 자녀의 비행친구 접촉을 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으며(김경민 외, 2018; 서봉언, 김경식, 2015; 서정민, 2013; 정병삼, 2010b; 조혜정, 윤명숙, 2010; DiClemente et

al., 2001; Lac & Crano, 2009; Laird et al., 2010; Lee & Randolph, 2015; Rai et al., 2003, Ramirez et al., 2004; Rodgers-Farmer, 2001),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고, 삶의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등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정병삼, 2010a; 조소연, 2014; 최미경, 2017; 최연실, 배희분, 2017; Bakken & Brown, 2010). 부모의 모니터링은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중요한 부모의 양육행동이지만(Dishion & McMahon, 1998), 특히 청소년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청소년들은 스릴이나 모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많아지는 동시에(Arnett, 1994)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Galinsky, 1981). 부모가 자녀를 직접 눈으로 보며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한편, 가족발달이론(Mattessich & Hill, 1987)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주요 발달과업이 이전의 수직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녀의 청소년기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갈 준비를 하는 동시에 부모 또한 자녀를 성인으로 독립시킬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때 자율성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실제로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부모에게 개방하지 않고 사생활로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시기이다(Smetana et al., 2009). 이러한 변화는 주로 자녀에게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자녀를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와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 사이에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 자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 반면, 부모는 자녀의 일상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변화에 대해 부모 역시 변화를 꾀하며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Smetana et al., 2009).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따라 부모의 모니터링 또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의 부모가 변화의 이정표로 삼아야 할 발달과업 중 한가지인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며 자녀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Mattessich & Hill, 1987; McArthur, 1962)과도 관련되어 있다.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자유와 규제는 어느 정도인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게 된다(Lionetti et al., 2019).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의 대부분은 자녀의 성공적인 대학입시라는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자녀의 자율성 발달에 따른 양육행동 변화를 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가는 이행기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성공적인 대학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면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행동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자녀가 오로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조경진, 김은정, 2009). 한국의 문화적 특성 상 자녀를 부모인 자신과 동일체로 여기며(이영미, 한재희, 2013), 자녀가 성공적인 입시를 통해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주된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더욱 애쓰고 있는 것이다.

시대적 변화도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한몫 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자녀의 일상을 매시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녀의 사적영역이 보장되고 자율성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이 변화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매순간 거듭되고 있는 현재는 자녀의 숙제 제출여부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용돈 사용 내역은 휴대전화로 알림이 온다. 마음만 먹으면 구글을 활용해 자녀의 현재 위치도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청소년의 90%이상은 개인소유

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어(신지형, 김윤화, 2018), 부모들이 언제든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자녀의 신변을 체크할 수 있는 시대에 부모들이 스스로 청소년 자녀의 사적영역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지하기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 쉽지 않은 선택의 상황이 주어진 것이다.

가족발달이론과 기존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따라 부모의 모니터링이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Hawk et al., 2016; Keijsers et al., 2016),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천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양육행동의 기초가 되는 모니터링 방식과 영역에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혹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적응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에서 이론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모의 발달과업 성취에 대한 이해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부모의 모니터링은 자녀를 규제하는 양육행동의 주된 수단이기에(Pettit et al., 2001),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는 양육행동이다. 따라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과정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발달과업 성취과정의 일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 변화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자녀를 모니터링 하여 얻게 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나 자녀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중심으로 한 양적연구(나유미, 임연진, 2002; 정윤주, 2014; Laird et al., 2003; Moilanen et al., 2009; Son & Choi, 2013; Tilton-Weaver & Galambos 2003)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적응과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의 변화에 발맞춰 자신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적응시켜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 자녀의 일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방식이나 영역에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를 장려하는 맥락이 있었는지, 변화가 없었다면 변화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맥락이 있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 이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모니터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첫째로 부모의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의 측면에서 양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 변화 유무를 살펴온 기존 연구들은 변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모니터링 영역과 전략 등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며 청소년기 모니터링에 관한 지식을 확장시킬 것이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변화에 발맞춰 적응해가는 과정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제 막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다 수월하고 건강하게 이 변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자녀를 모니터링 하는 어머니들이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은 어떠한가?

Ⅱ. 연구배경

1. 청소년기 가족의 변화

1) 이론적 관점: 가족발달이론

가족발달이론(Mattessich & Hill, 1987)은 개인이 아닌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설명한 이론으로, 가족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변화하고 발달한다고 본다. “가족발달”이란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가족의 발달단계와 관련된 변화의 과정을 일컫는 말이며, 가족발달이론은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형성부터 출산으로 인한 가족확대, 자녀의 출가와 부부의 사망에 이르는 가족의 축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Allen & Henderson, 2016).

Aldous(1978)는 가족발달이론의 기본적 가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Allen & Henderson, 2016). 첫째, 가족의 행동은 가족구성원의 과거 경험과 현재와 미래를 향한 목적과 기대의 합이다. 현재와 미래의 가족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들은 유사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발달하고 변화한다. 따라서 가족행동과 변화는 연령과 단계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인간은 성숙해지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환경적 압력에 반응한다. 즉, 가족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존재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는 전체 가족체계에 변화를 일으켜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 방식 또한 변화하게 되며, 가족의 구조와 가족역할에 관한 기대를 구성하는 규범들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넷째, 가족과 그 구성원들은 자신과 더 넓은 사회 구성원들이 정한 특정 시간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과 가족의 발달과업은 인생의

시간과 관련이 있다. 발달의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각 단계의 규범적인 목표가 있고, 이전의 단계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과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은 자율적인 기본 단위이다. 전체로서의 가족체계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행동과 반응에 의존하게 된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가족생활주기는 가족발달이론의 주요개념으로, 결혼에 의해 가족이 형성되고 첫 자녀를 출산함으로 가족이 확대되며 마지막 자녀가 분가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가족이 축소 및 해체 되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가족의 발달단계로 설명한다(Allen & Henderson, 2016). 가족생활주기의 발달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Duvall(1977)이 제시한 8단계가 전통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 각 단계는 해당 단계에 맞는 새로운 이슈를 가지며, 이전단계 혹은 다음단계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Klein & White, 1996). 물론 각 단계는 전 단계에서의 역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 단계는 이미 경험한 단계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단계와는 질적으로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구성원들의 역할 및 상호작용의 유형을 가지게 된다. 각각의 발달단계에는 해당 단계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과업들이 있는데, 이를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이라 한다(Allen & Henderson, 2016). 전 단계에서의 발달과업이 잘 서위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발달과업 성취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White et al., 2015). 이러한 발달과업은 각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주지만, 실제 일상에서 발달과업이 성취되는 시기는 매우 가변적이기에 해당 단계의 이정표(guidepost)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Allen & Henderson, 2016).

청소년기 가족에서 자녀에게 기대되는 중요한 과제는 자녀의 독립심

1) 1단계: 신혼기, 2단계: 자녀출산기, 3단계: 학령전기 자녀기, 4단계: 학령기 자녀기, 5단계: 10대 자녀기, 6단계: 진수기, 7단계: 중년기, 8단계: 노년기(Duvall, 1977)

형성과 가족과의 연결감 간에 균형을 잡는 것으로,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획득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Allen & Henderson, 2016). 아동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복잡한 추론과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권위를 중심으로 한 관계보다는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 결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동등한 상호작용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Lerner & Steinberg, 2009). 그 동안은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지만,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생겨서 그 의견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전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부모와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으며(Galinsky, 1981), 집에 있을 때에도 혹은 밖에 나가 부모와 따로 있을 때에도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관계의 중심이 가족에서 또래로 이동하게 된다(Steinberg, 1999). 이에 따라 삶의 다방면에서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물론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다(Steinberg, 2001). 부모와의 연결감을 기초로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변화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기대되는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한 가지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녀를 받아들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해 가는 것이다(한경혜 외, 2006; Allen & Henderson, 2016; Gavazzi, 2013). 이것은 자녀가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허락하고 얼마나 규제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양육행동 변화로 표현될 수 있다(McArthur, 1962).

가족의 발달 과정 중에 변화를 꾀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 어떤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반면 어떤 가족들은 전이기에 나타나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기

도 한다. 발달과업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한다(McArthur, 1962). Burr와 동료들은(1993)은 Cottrell(1942)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힌 연구를 바탕으로 무엇이 가족들로 하여금 전이기 변화에 잘 대처하게 하는지를 3가지로 정리했다. 예견적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 역할 긴장(role strain), 그리고 전이의 절차(transition procedures)가 그것이다. 먼저, 예견적 사회화는 예측 가능한 변화의 경우, 변화로 인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역할과 규범에 대해 미리 배우게 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역할긴장은 새로운 역할이 부여될 때 기존의 역할에 기대되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려면 과부하에 걸리거나 두 역할에 기대되는 바가 상충되는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과업이 주어지는 전이기에 기존의 역할과 새로운 역할에 기대되는 바들을 조정함으로써 전이기에 맞는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이를 둘러싼 사건들이 명확할 때 전이가 더욱 용이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보다 명확해질 때, 우리의 변화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의 시점이 명확할 때 부부로서의 과업들을 수행하기 더 용이할 수 있다. 다음 발달단계에서의 역할에 대해 미리 배우고, 역할긴장을 줄이며, 단계의 전이를 보다 명확히 할 때, 보다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은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겪는 변화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변화이기에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진입이라는 전이적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사건의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White et al., 2015). 따라서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자녀에게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할지가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역할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발달과업 성취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각 발달단계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가족발달 이론의 관점은 청소년기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좋은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변화와 부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행동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행동 변화는 백지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부모는 자신의 양육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주요 양육행동 중 한가지인 모니터링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앞서 가족발달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가족의 변화와 발달과업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청소년기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변화와 부모 양육행동을 다룬 실증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Deci & Ryan, 1987; 2000).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자율성에 대한 욕구 증가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주요한 발달적 특성이다(Zimmer-Gembeck, Collins, 2003). 청소년기 자율성 발달은 청소년의 정서발달, 자기유능감, 학업성취, 또래관계,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영역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어(윤초희, 최옥주, 2020; 이주아, 윤초희, 2020; 홍국진, 이은주, 2017; 홍윤경, 2021; Bynun & Kotchick, 2006; Mcelhaney et al., 2009), 이 시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자신의 품안에 두고자 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갈등이 야기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이면 갈등이 해결되며, 부모-자녀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해 간다고 밝혔다(이영미, 한재희, 2013; Lerner & Steinberg, 2009; Van der Giessen et al., 2014). 또한, 이러한 갈등해결의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강버들, 2020; 권상인, 양지웅, 2019; 김소연, 2017; 이영미, 한재희, 2013; 최정아 외, 2021).

실증연구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의 사생활에 대한 욕구의 증가는 일상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방청소, 친구관계, 활동통제, 학업, 취침 및 귀가시간 등의 일상 전반의 영역에서 부모-자녀 간에 사소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2016; 신효식, 이경주, 2001; Smetana, 1989). 이러한 갈등은 같은 사안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혀졌다. 부모들은 해당 사안을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문제로 보고 부모의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라 판단하여 청소년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자 하는데 반해, 자녀는 같은 사안을 개인적인 문제, 즉 사생활이라 여겨 부모의 통제에 거부감을 보였다(Smetana et al., 2009).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의 연구(2010) 결과에서도 도덕적, 관습적인 영역인 어른에 대한 예절 등에 대해서는 부모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겨지는 물건 관리, 용돈 사용, 음악 선정 등의 일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통제권을 더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모가 부모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 요구하게 되면, 사생활을 침범 당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빈번한 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Hawk et al., 2009).

이러한 부모-자녀 간 갈등은 청소년 자녀의 변화로 인해 부모양육행동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갈등적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자율성과 사생활의 경계를 다시 재정립해 갈 수 있다(Van der Giessen et al., 2014). 부모가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과 같이 청소년 자녀의 삶에 대해 통제하려고

한다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의 변화에 발맞춰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양육의 방향을 변화시키면 갈등이 해결되고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다(이영미, 한재희, 2013; Van der Giessen et al., 2014). Van der Giessen과 동료들(2014)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 갈등적 상호작용이 있을 때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해주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을 높이며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데 중요함을 밝혔다.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의 갈등극복 경험을 연구한 이영미와 한재희(2013)는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갈등 가운데서도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자녀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물러서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고, 이를 통해 갈등적 상호작용이 멈추고 다시 긍정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부모들의 '물러서기'는 회피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적극적 물러서기를 의미했다.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을 극복해 가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것은 '내려놓음'이었다. 어머니들은 자녀와 어떻게든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기 시작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강버들, 2020), 자녀와 거리를 두고 자녀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진정 자녀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했다(김소연, 2017). 권상인과 양지웅(2019)은 자녀의 생각이 어머니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으며, 최정아와 동료들(2021) 또한 어머니들이 갈등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워가며 성장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내려놓음'이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하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구체적인 양육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행동일 것이다.

Joussemet과 동료들(2008)은 Ginott(1969)의 공감적인 한계설정

(Empathic limit-setting)을 기반으로 자율성지지 양육행동의 4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1) 자녀에게 행동을 요구할 때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2) 자녀의 감정과 관점을 수용하는 것, (3) 선택지를 제공하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격려하는 것, (4) 통제적 양육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Grolnick과 Ryan(1989) 또한 자율성지지 양육행동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1) 자녀가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자녀의 자율성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2) 자녀에게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처벌이나 보상을 사용한 통제적인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는 등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기술을 사용하는 것, (3)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거의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허락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제시한 자율성지지 양육행동의 구성요소는 모두 부모가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감정과 의견을 수용하며, 부모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자율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결론적으로 자녀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행동은 자녀가 단순히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Joussemet et al., 2008), 적절한 한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녀가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돕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자율성지지 양육행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두 가지로 개념화하기도 했다. 독립성을 장려하는 것(PI; promotion of independence)과 자발적 기능을 장려하는 것(PVF;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이 그것이다(Bento-Gomez et al., 2020; Soenens et al., 2007). 독립성을 장려하는 것(PI)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인지, 정서, 행동적으로 분리되

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자발적 기능을 장려하는 것(PVF)은 자녀가 자율성을 원하며 자녀 스스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부모의 조언을 구하고 부모를 의지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자발적 기능을 장려하는 것(PVF)은 청소년의 웰빙과 낮은 문제 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는 반면 독립성을 장려하는 것(PI)은 높은 문제 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Chen et al., 2013; Van Petegem, et al., 2013).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가 무작정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자녀가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안전기지로서의 부모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인이 되어가는 이행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Steinberg, 2001), 부모를 의지하고 싶을 때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Peterson과 Bush(2013) 또한,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와의 친밀함을 안전한 기지로 삼아 자율성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율성과 부모와의 연결성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양립가능하고 필수적 측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Smetatna와 동료들(2004)은 자녀의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초기 청소년기부터 자율성을 허락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도덕적인 이슈나 안전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자율성을 허락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며 청소년의 자율성 획득 시기가 각 영역에 따라 그 유익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아직 인지, 정서, 행동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열망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 각 시기마다 그 한계를 명확히 하며 그 안에서의 자율성을 격려해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을 맞닥뜨린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자율성 허용 수준, 다른 말로 하면 자녀의 일상에 대한 규제 정도에 변화를 이루어가게 된다. 부모의 모니터링은 청소년기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Pettit et al., 2001), 부모의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의 적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1) 부모의 모니터링 개념

부모는 자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 자녀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집 안에서 혹은 밖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는지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모니터링이라는 양육행동으로 드러난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모니터링 하는 목적은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개입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모니터링은 자녀의 부적응이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보호요인으로 밝혀져 왔으며,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우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양육행동인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나유미, 임연진, 2003; 정병삼, 2010b; Barnes et al., 2006; Dishion & McMahon, 1998). 부모는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은 자녀의 삶에 계속해서 참여하여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가 겪게 될 부정적 결과를 미리 예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Lionetti et al., 2019). 적절한 수준의 모니터링은 부모의 좋은 양육행동(good parenting)의 요소 중 한가지로 포함되기도 했다(Devore, Finsburg, 2005).

이러한 모니터링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감독’이라는 용어로 쓰일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2)은 ‘감독’을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 또는 일의 전체를 지휘함” 이라고 정의한다.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단속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감독’이라는 용어는 비밀스럽게 관찰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어감을 가진 ‘감시’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니터링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부모의 양육행동이다. ‘감독’이라는

용어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어감을 지닌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모니터링은 자녀에 대한 훈육, 통제, 지도, 개입 등 다양한 개념을 아우르며 정의되어 온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Fletcher et al., 2004; Guilamo-Ramos et al., 2010; Hawk et al., 2016; Pettit et al., 2001; Seyfried, Chung, 2009). 특히 모니터링과 통제는 그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여 연구자들마다 모니터링과 통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모니터링 연구의 전문가들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책(Guilamo-Ramos et al., 2010)에서 Belle은 모니터링을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 중 한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Fletcher et al., 2004; Hawk et al., 2016)은 통제를 적극적인 모니터링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모니터링이 과해지면 통제가 되고, 적절한 수준의 건강한 통제가 이루어지면 모니터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Pettit과 동료들(2001)은 통제가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행동을 규제(Regulation)하기 위한 양육행동이지만, 모니터링과 달리 자녀가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도록 만들어 자녀의 독립성 발달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모니터링과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Turrist는 모니터링과 통제가 자녀의 일상을 규제하고자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Guilamo-Ramos et al., 2010). 모니터링은 자녀가 경계 내에 있는지, 안전한 선택을 하는 지 등에 관해 자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인 반면 통제는 자녀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에 청소년들은 자유를 침범 당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을 다룬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링의 개념정의는 Dishion과 McMohan(1998)의 것으로, Dishion과 McMahon(1998)은 모니터링을 부모가 자녀의 소재, 활동, 적응, 친구관계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추적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양육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모니터링이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자녀의 삶을 구조화하는 것으로,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일상을 구조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규칙을 세워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녀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다(김경민 외, 2018). 이것은 자녀의 활동범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파악하고 살피기 위해 행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자녀의 삶을 추적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Jaccard와 동료들(2010)은 부모의 모니터링을 세 가지 과정을 담은 구성체로 정의하였는데, 부모의 기대에 관한 대화, 모니터링, 훈육이 그것이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녀의 행동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난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에 대해 훈육하게 된다. 모니터링은 자녀가 부모가 기대하는 경계, 즉 부모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 속해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배희분(2015, pp.355-356)이 부모의 모니터링을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에 비유하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감지된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해 본인이 적절히 반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모니터링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자녀의 삶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자녀의 반응과 그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라는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니터링이라는 단어 자체는 주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에서 사용될 때는 보는 것을 넘어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종합하자면, 부모의 모니터링은 자녀의 삶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삶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모니터링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부모가 자녀의 삶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자녀의 일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자 노력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부모의 모니터링은 자녀의 일상을 살피는 다양한 양육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부모의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가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를 뜻하는 모니터링 지식을 측정하여 부모의 모니터링을 단편적으로 측정해 왔다. 특히 국내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을 다룬 대다수의 연구들은 허묘연(2004)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서봉언, 김경식, 2015; 조소연, 2014; 조혜정, 윤명숙, 2010; 최연실, 배희분, 2017; 정병삼, 2010a). 척도의 문항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밤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등 모니터링 결과로 얻게 된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parental knowledge)을 측정하는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추적하는(tracking) 모니터링 행동의 결과로 얻게 된 모니터링 지식을 모니터링으로 한정하여 사용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Kerr와 Stattin(2000)은 지금까지 부모의 모니터링이라고 사용되어 온 개념을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parental knowledge)이라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개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알게 되었으면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다는 모니터링의 결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알고 있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는 것이다. Cottrell과 동료들(2007)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모 모니터링 척도(PMI; Parental Monitoring Instrument)를 개발하였으며, 한국에서도 김용석(2012)이 Cottrell과 동료들(2007)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다. PMI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묻는 직접 모니터링(direct monitoring), 자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 이웃을 통해 자녀에 대해 알게 되는 간접 모니터링(indirect monitoring), 그리고 자녀의 물건을 확인하거나 통화를 엿듣는 등자녀의 사적인 영역을 살피는 제한적 모니터링(restrictive monitoring으로 구분하여 부모의 모니터링을 측정한다. 또한, 건강, 학교, 컴퓨터, 전화 등 다양한 각 영역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는 척도이다. 기존의 척도와는 다르게 모

니터링 지식에 한정하여 모니터링을 측정하지 않고, 부모의 모니터링 방식과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외에 다른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다룬 연구를 찾기가 어렵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양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하다보니 널리 사용되어온 자녀의 소재에 대한 부모 모니터링 지식 척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모니터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모니터링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연구결과를 넘어 부모 모니터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줄 것이라 기대한다.

2)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부모의 모니터링은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한가지로,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발달단계마다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며, 부모-자녀 관계의 역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자녀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모니터링 방식과 영역에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대다수의 청소년기 가정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밝힌 부모-자녀 공유 시간의 감소, 자녀의 자율성 증가 및 자기개방 감소 등의 변화(Lerner & Steinberg, 2009; Marshall et al., 2005; Tilton-Weaver et al., 2010)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모니터링과 관련이 깊은 영역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녀는 이전과 달리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며, 부모의 통제를 받는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한다(Lerner & Steinberg, 2009). 이에 따라 부모는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모니터링은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여가 포함된 개념이지만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자율성 획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를 다룬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모두 청소년기 자

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왔다.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는 모니터링 지식의 변화, 모니터링 방법의 변화, 모니터링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모니터링 결과로 알게 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 정도는 청소년기 진입 시기를 기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Moilanen et al., 2009; Son & Choi, 2013). 모니터링 지식의 변화를 선형적 모형으로 분석했을 때는 청소년기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연령 증가에 따라 모니터링 지식도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정윤주, 2014; Moilanen et al., 2009). 그러나 모니터링 지식의 변화를 선형모형이 아닌 이차함수를 활용한 곡선모형(quadratic model)으로 살펴보면, 초기청소년기에 진입하기까지는 모니터링 지식이 증가하다가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모니터링 지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Moilanen et al., 2009; Son & Choi, 2013). 모니터링 지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연령은 두 연구(Moilanen et al., 2009; Son & Choi, 2013) 모두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모니터링이 감소하고 그 결과, 모니터링 지식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모니터링 지식의 변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Laird와 동료들(2003)은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다른 연구결과들과 같이 학년이 증가할수록 모니터링 지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학생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은 수치이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독립적이기보다는 의존적인 성향으로 사회화 되는 경향이 있기에(Bumpus et al., 2001), 모니터링 지식이 남학생과 달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의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적어진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양적인 방법으로 연구된 것으로, 자

녀가 청소년기 진입하기 이전과 이후 모니터링 지식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지식이 줄어든다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니터링 지식이 감소했는지 등의 역동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알게 되는 방법 또한 변화한다고 밝혀 왔다. 학자들은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solicitation), 통제(control), 그리고 자녀의 자기개방(disclosure) 등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자녀의 자발적인 자기개방이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 지식을 가장 많이 예측한다고 밝혔다(Kerr & Stattin, 2000; Kerr et al., 2010). 자녀가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했을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해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녀의 주체적인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자녀의 자기개방을 자녀의 '정보관리(imformation management)'라고 표현하기도 했다(Laird & Marrero, 2010). 청소년기가 되면서 모니터링에 있어서 부모의 일방적 노력보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측면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자녀의 자기개방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유미, 임연진, 2002; 손승영, 2009; Keijsers et al., 2016; Tilton-Weaver & Galambos, 2003). 손승영(2009)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자녀가 숨김없이 다 얘기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반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는 부모에게 숨기는 게 많아지고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녀의 자기개방이라고 밝혔지만(Kerr & Stattin, 2000; Kerr et al., 2010), 동시에 청소년기는 자기개방이 줄어든다고도 보고했다(나유미, 임연진, 2002; 손승영, 2009; Keijsers et al., 2016; Tilton-Weaver & Galambos, 2003).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살피기

위해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자녀의 자기개방 외의 다른 방도를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을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녀의 자기개방 외에 어떤 방법으로 자녀에 대해 알게 되는지 등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영역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먼저, 자기개방 수준을 늘리기 위한 방도로는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것(Hawk et al., 2013)과 자녀에게 애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Keijsers et al, 2016; Tiltion-Weavor, 2014) 등이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가 사생활을 침범 당했다고 느끼면 이듬해에 자녀의 비밀이 많아졌고, 이것은 그 다음 해에 부모지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awk et al., 2013). 또한 부모에게서 따듯함과 지지를 더 많이 느낀 날은 청소년 자녀의 자기개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Keijsers et al, 2016),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느낄 때 자기개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iltion-Weavor, 2014). 자율성을 인정받는 것과 함께 부모로부터 얻는 지지가 자녀의 높은 자기개방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자기개방 외에 자녀를 알 수 있는 방도로는 자녀의 친구나 친구의 부모 등 제3자를 통해 알게 되는 것(Bourdeau et al., 2011), 가족공유활동을 통해 자녀를 살피는 것(Jiménez-Iglesias et al., 2013), 그리고 자녀의 물건을 몰래 살피는 것(Hawk et al, 2016) 등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자녀에 대해 알기 어려워진 부모들이 자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자녀에게 직접 묻는 것 외에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 모니터링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부모가 직접 묻거나 청소년의 자기개방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식의 모니터링 위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략을 연구한 Bourdeau과 동료들(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적인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자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부모

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만큼 해당 영역에 관해 밝혀진 바가 많지 않아 부모들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부모의 모니터링 내용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부모들에게 청소년 자녀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싶은지 연구한 결과, 응답부모의 64%가 자녀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Smetana & Rote, 2015).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개방하기보다는 영역에 따라 개방 수준을 달리하고 있었다(Smetana et al., 2009).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더 많이 개방하였고, 친구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 수준이 낮았다. 자기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부모에게 개방했을 때 부모의 부정적 반응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Marshall et al., 2005). 누구와 언제 무엇을 한다는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부모와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는 모습도 보였다(Bakken & Brown, 2010). 부모는 자녀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지만 청소년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사생활로 여겨지는 개인적인 영역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부모 스스로 자녀의 사생활에 대한 욕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자녀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분투하게 된다(Williams, 2003). 부모들은 적절한 경계를 찾고자 하며, 자녀의 삶에서 어디까지 알고자 할 것인지를 정해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자녀가 청소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모니터링이 방식과 영역, 결과인 모니터링 지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해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또한, 부모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 이로 인해 변화한 모니터링 방법과 변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역동, 다시 말해 자녀의 변화에 대해 부모가 대처하는 다양한 양상과 부모가 처한 상황적 맥락이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촉진하거

나 더디게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의 결과들(나유미, 임연진, 2002; Keijsers et al., 2016; Smetana et al., 2009; Tilton-Weaver & Galambos, 2003; Williams, 2003)을 바탕으로 자녀의 자율성이 더 많이 허용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고군분투가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3)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롯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자녀의 특성까지 다양한 요일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니터링 변화 자체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기에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요인들 중 모니터링 변화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문화권에 따라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개인의 발달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며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여겨진다(Zimmer-Gembeck, Collins, 2003). 따라서 가족 내에서도 청소년기에는 개별성(individuality)과 자율성(autonomy)이 강조되며, 자율성(autonomy)과 연결성(relatedness)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부모-자녀 관계를 성숙한 관계의 지표로 여긴다(Peterson & Bush, 2013).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와의 친밀함을 안전한 기지로 삼아 자율성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부모는 이것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관계지향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최인재, 2006).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얼마나 개별화 되는가보다는 심정적 교류가 얼마나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다(현정환, 2007).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발달과 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서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Yu(2011)는 한국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친밀감 발달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패널을 사용하여 5년간의 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으면 자율성 증가가 더디고, 자율성이 높게 나타나면 부모와의 친밀감 증가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사회와 달리 관계지향주의 문화를 가졌으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부모와의 친밀감과 자녀의 자율성이 동시에 발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구체적인 양상을 예측해 보자면, 순종을 중요시 여기고,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의 일상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관여와 관리를 부모의 사랑으로 여겨 당연시 할 수 있을 것이다(Brown & Mounts, 2007). 혹은 부모와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이나 일상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기를 선택할 수 있다(Triandis, 1989). 반대로 청소년 자녀가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행동을 취할 때, 부모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더욱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의 공부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서구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입시를 위해 부모가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현실이다(조경진, 김은정, 2009). 청소년들의 입시문화를 연구하고자 했던 조경진과 김은정(2009)은 부모가 형성한 구조 하에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관리되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부모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 자녀의 친구관계에 간섭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갈등이 가장 높은 영역이 성적과 진로임을 밝히기도 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공인숙 외, 2005)에서도 숙제나 성적이 부모-자녀 간 갈등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2016)에서

도 부모와 가장 갈등을 심하게 겪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성적과 진로였다. 이영미와 한재희(2013)는 '부모자녀 동일체 의식', 즉 자녀의 학업성취는 자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일로 보는 한국사회의 특성 상, 청소년 자녀의 독립의 욕구가 커지는 발달시기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가 맞물려 더 큰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서 부모 모니터링이 서구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변화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도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지만,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로 인해 자녀가 쉽게 그 욕구를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학업 영역에서만큼은 부모가 세세히 살피며 관리하는 등 서구와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모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변화와 그 적응과정을 다룬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좀 더 폭넓게 청소년 자녀의 변화와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 소수연과 동료들(2014)의 연구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행동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며 부모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하고 인내하며 외부 도움을 모색한다는 결과를 밝혔지만, 부모들은 왜 그런 대응방식을 선택했는지,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갈등 극복 과정을 살펴본 이영미와 한재희(2014)의 연구 또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하지만, 자녀의 학업에 대한 엄마의 기대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그 외의 영역에 대한 적응과정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으로 인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와 적응과정이 다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사회의 입시문화로 인한 매니저부모가 청소년의 일상전반에 대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

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학업문제는 어머니의 정보 수집 능력 자체가 자녀교육을 위한 자본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학업 영역에서만큼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이 아닌 부모의 정보력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은 의도치 않게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손승영, 2009). 소득이나 부모의 직업지위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단순히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의 모니터링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reau, 2011).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경우, 우선 자녀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선택하기 어렵다(Hoff et al., 2002; O'Donnell et al., 2012).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추어진 동네에 살기 어렵고,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 더불어, 부모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따로 시간을 내어 자녀의 일상에 관여하기 어려워진다(손승영, 2009). 이 경우, 청소년 자녀는 일상의 많은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자녀로 하여금 더더욱 부모와 상의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한다. Bakken과 Brown(2010)의 연구결과,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Hmong족 청소년들은 백인 청소년에 비해 부모에게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해 더 비밀스러웠고, 거짓말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소수 민족이다 보니 부모는 언어적인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을 도와줄 수 없다는 무기력이 있었고, 아이들도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족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시골이 아닌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모니터링 지식 증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et al., 2003). 도시거주 및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양한 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녀의 일상적 환경을 자유롭게 구조화할 수 있게 하고, 부모에게도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일 심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여 부모의 모니터링을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Updegraff et al., 2012).

그 외에도 자녀의 기질 혹은 자녀의 비행행동, 그리고 청소년기 변화에 대한 정보는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 모니터링 수준에 대한 변화에는 부모의 모니터링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tit et al,, 2007). 부모가 자신의 일상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기질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부모의 모니터링 수준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생각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쳐,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더욱 급격하게 수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기존에 청소년 자녀의 행동 또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청소년 자녀의 음주행위가 많으면,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정, 윤명숙, 2010).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부모의 양육행동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연과 동료들(2014)은 청소년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부모의 대처에 관해 부모들을 인터뷰한 결과,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부모가 자녀의 변화 특성에 따라 자신의 양육행동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들이 자녀의 변화 특성을 모르고, 또한 변화 특성에 따라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변화에 적응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는 부모가 자녀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간 갈등을 줄이고 적응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신의 모니터링을 변화시켜 가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갔는지, 변화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변화를 어렵게 하는지 등을 질적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먼저는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에 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질적연구를 통해 부모들이 어떤 모니터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며 자율성을 인정해가는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부모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부모들이 자녀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개입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발달 이론적 관점과 실증연구 결과 모두 변화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온 만큼, 실제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모니터링 양상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론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은 세상을 이해하는 틀로 기능하기에 가족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하는 실무자들은 가족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고 일하게 된다(Allen & Henderson, 2017). 따라서 가족발달 이론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 가족 연구의 기반이 되며, 실제 가족을 돕는 현장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근거이론 방법

본 연구는 모니터링이라는 양육행동을 통해 청소년 자녀의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자료에 '근거(Grounded)'하여 이론을 만들어내는 귀납적 연구방식으로(김병섭, 2010), 실체적 영역에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낸다(Charmaz, 2006). 이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이 없을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Creswell, 2007).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1967)가 공동으로 제시한 방법론이지만, 1990년대 이후 Glaser와 Strauss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 근거이론은 크게 Glaser 학파의 것과 Strauss 학파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Schreiber & Stern, 2001). 먼저, Strauss는 제자인 Corbin과 함께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0)를 출판하여 근거이론을 체계화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0)은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참여자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반영한 주제를 연구의 주제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자료수집이나 분석과정에서 보다 구조화된 방식을 제시한다(이동성, 김영천, 2012; 최귀순, 2005).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제시한 코딩 패러다임은 분석과정에서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자료에서 발견한 내용을 하나의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석도구로, 구조화된 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laser(1998)는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이 자신의 방법론과 다르다고 밝히며 비판했다. Glaser(1998)는 연구참여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연구주제를 선택해야 하며, 자료수집이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인위적인 틀에 맞추기보다는 분석과정에서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여 핵심범주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동성, 김영천, 2012; 최귀순, 2005). 연구자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두 학파의 입장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과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연구자가 질적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수집이나 분석 단계에서 보다 구조화된 방식이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Strauss와 Corbin(1990;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제시한 특정 분석 틀인 코딩 패러다임은 활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코딩 절차를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Corbin과 Strauss(2015)의 『근거이론』 제4판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의 수집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모집

본 연구는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첫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 2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어왔다(김의철 외, 2005; 박혜경, 2009). 따라서 어머니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했을 때 변화의 역동이 잘 드러날 것이라 판단하였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자녀의 이야기를 건너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Waizenhofer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 시점 이전과 이후의 어머니 모니터링 양상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모

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의 연령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규정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Moilanen et al., 2009; Son & Choi, 2013)에 따르면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증가하나, 6학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변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시기는 변화의 시기라고 밝혀진 초등학교 6학년으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으로 인한 발달적 변화에 대해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보이며 적응과정을 거치고 모니터링에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니터링 변화와 관련된 어머니의 적응 이야기를 회고적인 방식으로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령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모집 문건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승인된 모집 문건을 배포하였으며, 연구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모니터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Updegraff et al., 2001) 결과를 참고하여 자녀 성별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구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 다시 한 번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세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참여자마다 두 번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1차시기의 자료수집은 2019년 8월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총 5명의 참여자를 면접하였다. 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4명의 부모가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있었고 모니터링 변화 과정에 부모교육 참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에서 11월까지 두 달간 이루어진 2차시기의 자료수집에서는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을 더 많이 모집하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2차시기 자료수집에서는 총 5명의 참여자가 면접을 진행

하였고, 이 중 3명이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따로 받아본 적이 없거나 한 두 번의 일회성 학교교육에만 참여한 적이 있는 참여자들이었다. 2차시기까지 수집된 총 10명의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변 이웃에 누가 사는가에 따라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습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또래친구들 부모나 이웃주민들의 학구열 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정교화 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을 하나의 표집 축으로 선정하고, 3차시기 자료 수집 때는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져 온 지역의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3차 시기에는 10명의 참여자를 면접하였는데, 자료수집 기간인 2020년 6월과 7월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면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은 화상 면접으로, 3명은 전화 면접으로 면접의 형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때는 연구설명서와 연구참여 동의서를 연구참여 전에 메일 혹은 우편으로 발송하여 미리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의서에 서명한 후 사진 찍어 연구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대면 면접은 대면 면접에 비해 시각적 단서가 부족하여 연구참여자가 표현하는 비언어적 단서를 놓칠 수 있고, 라포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면접 도중 연결이 끊기는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Deakin, Wakefield, 2014; Irvine et al., 2012; Sedgwick et al., 2009).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대면 면접에 비해 면접 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Irvine et al., 2012). 그러나 연구자들은 면접 전에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과정은 라포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Deakin, Wakefield, 2014), 연구참여자의 한숨, 억양, 주저함 등 비언어적 단서를 대신할 수 있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비대면 면접 또한 대면 면접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심층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Novick, 2008).

따라서 비대면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3차시기 면접을 진행할 때는

면접 전에 연구참여 설명문과 동의서 등을 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을 통해 한 번 더 라포형성의 기회를 가졌으며, 면접 중에 연결이 끊기거나 소음으로 면접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였다. 연구자의 노트북과 마이크, 휴대전화 충전 및 인터넷 연결 상태를 미리 확인할 뿐 아니라 연구참여자에게 화상면접 도구인 Zoom프로그램 사용법을 미리 공지하여 수월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대면 면접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전화면접보다는 화상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전화면접을 진행할 때는 미묘한 목소리 차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애썼으며,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의 비언어적 신호인 끄덕임 등을 볼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언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제로 면접을 진행할 때는 면접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면접 시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면 면접은 평균 161.4분, 비대면 면접은 화상 면접이 150.6분, 전화 면접이 138.7분으로 대면 면접의 면접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그러나 대면 면접에서 가장 길게 면접한 한명의 연구참여자의 면접시간(302분)을 제외하면 대면 면접 시간의 평균은 145.8분으로 오히려 화상 면접 시간이 더 길어, 대면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 시간이 더 긴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녹취록을 작성하고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접의 차이를 보다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대면하여 만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면접 당시의 분위기와 연구참여자의 표정도 함께 떠오르며 그 내용이 보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반면 비대면으로 만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면접 내용을 읽으며 연구참여자의 분위기를 떠올리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다. 특히 전화면접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비대면 연구참여자의 녹취록을 읽을 때는 더욱 꼼꼼하게 읽기 위해 애쓰면서 면접 방식으로 인한 차이를 줄이고자 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

들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명 있었다. 전일제로 일하는 연구참여자는 5명, 파트타임 근로자 5명, 프리랜서 4명, 그리고 전업주부가 6명이었다.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일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고 서울에서 친정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편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은 연구참여자들이 설문지에 응답한 월평균 가구소득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 상, 중, 중하로 구분하였다. 최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4명, 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7명, 중에 해당하는 경우가 6명, 그리고 중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3명이었다. 첫째 자녀의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10명, 고등학교 2학년이 10명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가명)	연령 (만)	근로 형태**	가구원 수	자녀 수	자녀학년 (첫째/둘째/셋째)	자녀성별 (첫째/둘째/셋째)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면접 방식
1	이윤성	46	전일제	4	2	고2/중1	남/여	서울시 금천구	중	대면
2	안현주	50	프리랜서	3	1	고1	남	서울시 강서구	최상	대면
3	임선경	44	전일제	5	2	고1/중2	여/여	서울시 강서구	중하	대면
4	홍인선	43	프리랜서	4	2	고1/중2	여/남	서울시 동작구	상	대면
5	정미연	44	시간제	4	2	고1/중3	남/여	서울시 강서구	중하	대면
6	서원희	54	시간제	4	2	고1/중2	여/남	서울시 강서구	중하	대면
7	박수현	44	전업주부	4	2	고2/초6	여/남	서울시 강서구	중	대면
8	신미금	46	시간제	3	1	고1	남	서울시 관악구	중	대면
9	차성임	46	전업주부	4	2	고2/중3	남/여	경기도 수원시	상	대면
10	오미영	47	전업주부	4	2	고1/중2	남/여	서울시 성동구	상	대면
11	강효주	41	프리랜서	4	2	고2/초5	남/남	서울시 서초구	최상	비대면(화상)
12	안선희	46	전일제	3	1	고2	여	서울시 종로구	상	비대면(화상)
13	박유리	44	전일제	5	3	고1/중2/초6	여/여/남	경기도 수원시	중	비대면(화상)
14	황수지	46	프리랜서	4	2	고2/초6	여/여	경기도 분당시	중	비대면(화상)
15	강주수	45	시간제	4	2	고2/중1	남/남	경기도 수원시	중	비대면(화상)
16	배민정	47	전업주부	3	1	고2	남	서울시 광진구	상	비대면(전화)
17	곽유정	47	시간제	3	1	고1	여	경기도 분당시	상	비대면(화상)
18	남윤혜	46	유연근무전일제	4	2	고2/중2	여/여	경기도 안양시	최상	비대면(화상)
19	김민수	47	전업주부	4	2	고2/중3	남/남	인천시	상	비대면(전화)
20	조윤지	44	전업주부	5	3	고2/중3/중3	남/여/여	서울시 서초구	최상	비대면(전화)

* 모든 정보는 두번째 면접일을 기준으로 한 정보임

**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형태만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직업은 필요한 경우 본문에 제시하였음

2) 심층면접

심층면접 방법은 개인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Charmaz, 2006). 따라서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이 근거이론방법과 잘 부합하다는 연구자들의 견해(Creswell, 2012; Charmaz, 2006)에 따라, 반구조화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모니터링 관련 문헌을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면접용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을 진행하되, 면접의 흐름과 연구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부가적인 질문을 던지는 등 융통성을 갖고 면접을 진행하였다.

20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2회 면접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일상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질문을 위주로 면접을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평소에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진 뒤에는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대화내용, 자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 자녀와의 갈등에 관한 부가질문을 이어나갔고,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 이후 변화된 관계와 아빠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어서 질문하였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먼저 첫 번째 면접에서 나눴던 이야기 중 모호한 내용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였다. 이후, 부모의 모니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짧게 개념설명을 한 뒤 “자녀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 대해 알게 되시나요?”, “자녀가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을까요?” 등으로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질문하였다. 그 이후, 청소년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된 경험이나 일화를 구체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 한 명당 평균 총 면접시간은 약 154분이었다.

1차와 2차시기에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은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에

위치한 스터디카페를 비롯한 조용한 카페 혹은 연구자가 재학 중인 학교 내 강의실에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3차시기에 모집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모든 면접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면접 전에 다시 한 번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 내용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두 대의 녹음기로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기에 담기지 않는 연구 참여자의 표정, 행동, 그리고 녹음기가 꺼진 후 연구자와 나눈 대화 등은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면접 직후 기록하였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댓가로 1회 면접에 참여할 때마다 3만원을 지급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녹음된 면접 내용은 치밀하게 전사하였으며, 모든 기록은 익명 처리하여 전산화하여 보관하였다.

수집되어 정리된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15)의 분석 단계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Corbin과 Strauss(2015)가 제시한 분석방법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분석 작업으로, 분석의 단계가 구분되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Corbin & Strauss, 2008). 그러나 연구자의 분석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설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를 개별 부분으로 분해한 후, 정보의 범주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개방코딩(open doding)이라 불리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텍스트를 열어 젖혀서 자료로부터 특정 개념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이동성, 김영천, 2012).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줄 단위로 꼼꼼히 읽으며 개별 부분으로 분화하여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미시분석(micro-analysis)을 수행하게 된다. 미시분석은 연구자로 하여금 자료에 깊이 파고들게 하고,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도록 한다(Corbin & Strauss, 2015).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범주들의 속성을 기존의 이론과 비교하기도 하고, 범주들 간에 지속적으로 비교하기도 하며, 출현한 범주들의 이론적 타당성과 적용범위 등을 검토하게 된다(이동성, 김영천, 2012).

두 번째 단계는 범주들끼리 서로 연결시키는 단계로, 축코딩(axial coding)이라고 한다. 개방코딩을 하는 동안 분해한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하는 작업이다. 즉, 두 개 이상의 범주를 서로 연결하여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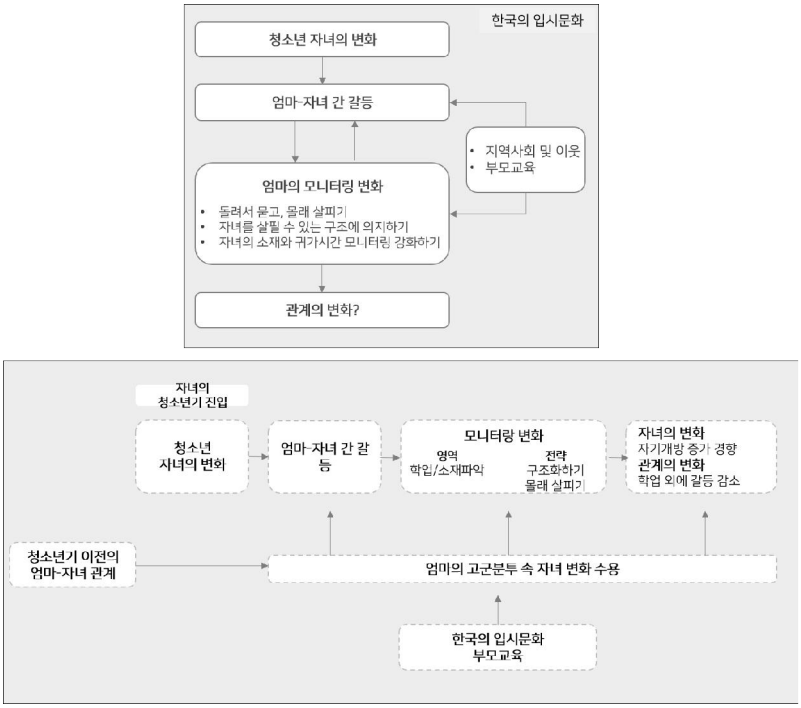
근거이론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범주들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단계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이라고 부른다. 이 단계에서는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과정을 통해 발견된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따라 발견된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 하여 이론을 구축해 간다.

Corbin과 Strauss(2015)는 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 비교, 질문하기, 그리고 메모쓰기와 도표그리기를 강조한다. 분석을 할 때 연구자는 개념과 개념, 그리고 선행연구와 개념 등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분석을 발전시켜 갈 수 있다. 또한 자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하거나 도표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 생각을 더욱 명료화하고 확장시켜 분석을 진전시킬 수 있다. 분석 과정 내내 메모와 도표 작성을 지속함으로써 짧지 않은 분석기간 동안 분석내용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위의 내용을 따랐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개념화하는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을 위해서는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해 개발된 MAXQDA 2018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녹취록을 줄 단위로 개방코딩하여 발견한 코드는 총 2,150개였다. 둘째, 개방코딩한 내용을 모두 출력하여 연구참여자별로 해당 코드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재배열하여 개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 하였다. 예를 들어, ‘SNS 염탐하기’, ‘체크만 하고 얘기하지 않음’, 몰래 가보기‘ 등의 코드는 ’몰래 하기‘라는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대화를 끌어냄’, ‘바람보다는 햇빛’, ‘돌려서 물어봄’ 등의 코드는 ‘묻는 방식의 변화’라는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나아가 ‘몰래 하기’와 ‘묻는 방식의 변화’라는 상위개념은 또 다시 ‘모니터링 전략 변화’라는 더 큰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축코딩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축코딩의 일부 내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셋째, 각 연구참여자별 범주화를 마친 후에는 연구참여자 간 비교를 통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해체하고

재범주화하며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발견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도표를 활용하여 발견된 주제들을 명료화하고 확장시켜기며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념은 삭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나온 부부관계 이야기 혹은 아빠의 모니터링 이야기는 엄마의 모니터링 변화 과정을 이론화하고 제시하는 데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삭제된 개념의 예로, “아빠와 아이는 관계가 좋지 않음”, “엄마를 통해 자녀를 알게 되는 아빠” 등이 있다. [그림 1]은 분석의 중간 단계에서 관련이 없는 개념들을 삭제하고, 모니터링 변화과정과 관련된 개념과 주제만을 남겨서 주제 간의 관계를 그려본 도표들의 예이다.



[그림 1] 분석의 중간단계에서 그린 도표의 예

분석 초기에는 [그림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참여자들 간의 뚜렷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비슷한 과정을 먼저 발견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적응 과정과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하며 연구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통합모형으로 도표를 그리게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속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혹은 이웃의 특성도 모니터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했었다. 관련된 코드는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더 간섭해" 혹은 "우리 아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등이었다. 그러나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 영향은 전체 과정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범주를 삭제하고 최종모형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발견된 2,150개의 개념을 통합하여 범주화하며 발견한 주요범주는 3개였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주요 주제인 핵심범주를 발견하였다.

<표 2> 축코딩 일부 예시

주요범주	범주	하위범주	개념
모니터링과 관련된 엄마의 대응	모니터링 전략	간섭하지 않음	그러려니 함
			잔소리해도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함
			갈등이 될까봐 간섭하지 않음
			기다려주면 변할거라는 믿음
			이래라 저래라 안 함
			어차피 할거니까 풀어줌
		몰래 하기	SNS 염탐
			신용카드 사용 체크하기
			체크만 하고 얘기하지 않음
			주의 깊게 보기는 함
			몰래 가보기
			학원 선생님과 몰래 통화하기
			알지만, 모르는 척하기
			일기 몰래 보기
		묻는 방식의 변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대화를 끌어냄
			바람보다는 햇빛
			돌려서 물어봄
		자세히 살피기	눈빛을 보고 알게됨
			얼굴표정으로 알게됨
		규칙세우기	이동시 보고에 대한 규칙
			귀가시간에 대한 규칙
			휴대전화 사용 규칙
			외박 시 사진으로 확인
			활동반경에 대한 규칙
		제3자를 통해 살피기	선생님을 통해 알게됨
			자녀 친구에게 물어보기
			자녀 친구 엄마들을 통해 알게됨
			친척들을 통해 알게됨
		자녀에게 직접 묻기	물어보면 대답은 잘함
			전화로 체크
		구조화하기	학교, 학원에서 연락이 옴
			통제하기 위한 환경조성
	모니터링 영역	모니터링 지속	소재파악을 위한 노력
			성적에 대해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됨
		엄마마다 다른 영역	용돈 사용 내역 체크
			일기 체크
			SNS 체크
			학교생활 살피기
			이성친구 살피기
			스마트폰 체크

Ⅳ. 연구결과

청소년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변화들로 인해 크고 작은 충돌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말을 잘 듣던”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로 대표되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욕구가 생긴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개방을 줄이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잔소리로 받아들여 “막말”을 일삼으며 대들기도 했고,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자녀의 변화로부터 엄마의 모니터링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녀가 안전한 경계 안에 있는지 살피는 동시에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모니터링 변화를 이루며 자녀의 변화에 대해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결국 자녀와의 관계 변화로까지 이어지는가는 연구참여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어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이 높아졌지만,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연구참여자가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3개의 주요범주가 발견되었다.

첫째,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높아진 욕구는 자녀를 품 안에 두고 싶은 엄마의 기대와 충돌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와 자녀 간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자신의

모니터링에 변화를 주고 있었다. 이것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놔두거나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몰래" 살피며, 자녀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모르는 척"했다. 둘째로, 구조화된 환경을 활용하여 자녀를 살피고 있었으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구조화된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셋째,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은 변함없이 힘써 파악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공부 문제에 있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율성을 허락해야할지, 더욱 밀착해서 관리해야 할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이러한 변화가 자녀와의 관계 변화로까지 이어지는가는 참여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갈등이 해소되고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이 높아지며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자녀를 몰래 살피고 모르는 척 했고, 구조화된 환경을 활용하여 자녀를 살피며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갔지만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모니터링을 변화시키고 자녀의 변화에 적응해 가며 관계의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관점을 언제 갖게 되는지에 따라 1)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2) 엄마의 기준을 강요하기, 3) 좌절을 경험하고 강요 멈추기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주요범주를 중심으로 엄마들의 적응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를 품 안에 두고 싶은 엄마와 자율성 욕구가 증가하는 자녀

1) 내 맘대로 안 되는 아이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들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가는 것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마주하게 되는 큰 이슈다(전상진, 정주훈, 2006).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전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들은 대체로 엄마가 정해놓은 경계선 내에서 일상을 살았고,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자녀는 엄마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안에 있었으며, 안전지대 안에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녀는 “통제 가능”했고, “눈 앞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알 수 있었다. 또한,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와 줄 뿐 아니라 자녀가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함께 집에서 보냈기 때문에 특별히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바대로 하려고 했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때를 청소년 진입 시기로 기억하고 있었다. 활동반경이 커지고,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청소년 자녀들은 엄마가 정해둔 경계선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일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녀의 자율성 욕구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사적 영역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고2 아들과 중2 아들을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강주수씨는 큰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엄마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다고 한다.

강주수: 제 맘대로 안돼요. 애가 이제 중학생만 돼도 요즘 애들 똑똑해갖

고 엄마가 끌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끌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나 보면.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이 주관도 뚜렷하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의도한다고 엄마가 오는 길로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순한 편인데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4명의 연구참여자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선 것을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자녀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자녀의 높아진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뒤 통보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부모와의 상의가 필요해서 학부모 서명란이 마련되어 있는 가정통신문에도 스스로 결정하고 사인해서 제출한 뒤 부모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영역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전업주부로서 고2 아들과 중3 딸을 키우고 있는 차성임씨는 이러한 자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차성임씨는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자기주장이 강해져서 부모의 의견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반복적으로 웃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인 자신의 기대와 의견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인 연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민망한 듯 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집합주의적 문화(Fousiana et al., 2014)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변화를 부모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성임: 제가 뭐 얘기하면, 걔도. 엄마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웃

음) 그래 너 알아서 해. (웃음) … (중략) … 이제.. 약간 우리한테 통보는 해줘요. (웃음) 과목 선택하는 것도 원래 학부모 사인 받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하고 사인해서 내고. (웃음) 엄마 저 뭐뭐뭐 이거 선택해서 냈어요 하고 얘기는 해줘요. 어 그래 알겠어. 지금은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같아요.

청소년기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 외에도 사적영역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발적 자기개방이 줄어드는 동시에 휴대폰을 잠가두는 등 비밀이 증가하여 자녀에 대해 알기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참여자의 2/3 이상은 자녀가 함께 집에 있더라도 자녀는 주로 방 안에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 자녀가 “문 닫고 안 나오는 건 기본”이었다. 이 때문에 엄마와 자녀가 함께 집에 있더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각자 할 일을 하며 집이라는 공간만 공유하고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었는데도 늘 방문을 열어두거나 방문을 닫지 않고, 혹은 방이 아닌 거실에서 주로 생활한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희한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만큼 청소년기 자녀가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공공연한 변화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참여자들은 자녀가 방문을 닫는 것을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세 명의 연구참여자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방문 닫는 것을 소통 혹은 관계의 단절로 인식하여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방문 닫는 걸 허용하지 않아왔다. 늘 자녀의 방문이 열려있었고 자녀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여겨왔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가 자신의 사적공간을 가지고 싶어서, 혹은 연구참여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자녀의 자기개방이 줄어드는 것은 각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

만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부분이었다. 자기개방 감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전과 달리 엄마가 원하는 수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공유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엄마가 학원은 어땠냐고 물으면, “그렇지 뭐” 하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이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부모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도 “잘못하다가 막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삶의 많은 부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두고 싶어하지만, 부모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통제권을 빼앗기고 부모와 충돌하게 되는 등 갈등을 경험하거나 자율성을 침해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 자녀의 자기개방 감소는 세부사항을 말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 자신의 휴대폰을 잠가두고 부모의 SNS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추는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채경선, 정윤주, 2015),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자녀의 생각, 감정, 친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가득한 곳이기에 청소년 자녀들은 엄마 아빠와 SNS “친구를 끊고”, 몰래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고 있었다. 아들 둘을 키우며 대학원에서 코칭공부를 하고 있는 강효주씨는 큰 아들이 중학교 때 흡연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로 적극적으로 자녀를 “와칭(watching)”하기 위해 자녀와 SNS 친구를 맺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친구가 끊겨있었고, 심지어 엄마 친구의 “와칭”도 피하기 위해 몰래 만든 새로운 계정이 있었다며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강효주: 저는 SNS 하지도 않지만 나는 걔를 이제 와칭을 하려고 친구.. 야 뭐 나도 엄마도 SNS 페이스북 할게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얘 게 안 뜨는 거에요. 봤더니 끊었어 나를.(웃음) 친구

끊고. 아빠가 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걸 알고 아빠도 끊어버리대, 조용히. … 제 친구 있잖아요. 이제 아들이 이모 이모하는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 야 너는 페이스북 친구 안 돼 있어서 안 보이겠지만 나는 보고 있는데, ○○ 뭐 그냥 그럭저럭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지내는 거 같아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계정이 또 있어.(웃음) 그 이모랑도 안 맺은 다른 계정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우리가 뭘 감시를 해. (웃음)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 그런 거는 포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모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알아서”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며 사적영역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다. 또한, 자기개방이 줄어들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숨기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적 특성인 자율성과 사적영역에 대한 욕구 증가(나유미, 임연진, 2002; 손승영, 2009; Keijsers et al., 2016; Tilton-Weaver & Galambos, 2003; Zimmer-Gembeck, Collins, 2003)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부모에 대한 순종을 중요시 하고 관계지향적인 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최인재, 2006; 현정환, 2007)에서도 개별성과 자율성이 중요시 여겨지는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며 자라가고 있었다.

2) 잔소리하는 엄마와 대드는 아이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일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사적영역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모습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정해둔 경계선을 마음대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긴 것이었고, 자녀가 경계선 안에. 즉 엄마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자녀에 대해 더 이상 알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는 없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자녀에 대해 알아야 위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자신이 정해둔 경계선 내에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며,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의 변화에 발맞춰 엄마들이 모니터링이라는 양육행동에 변화를 이루기보다는 기존처럼 자녀를 살피며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청소년기 자녀들은 엄마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엄마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드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혹은 자녀의 일상에 대해 지적하거나 간섭하면 자녀는 이것을 강요나 "잔소리"로 받아들였고, 이것은 "잔소리"와 "막말" 형태의 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전과 달리 엄마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표현했다. 자녀의 높아진 자율성과 아직 변화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충돌하고 있었다. 여전히 자녀가 자신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사적 영역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진 자녀와 충돌하게 된다. 엄마 말을 잘 들어오던 딸이 이전과 달리 엄마의 의견과 다른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자, 이것을 '대드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는 강주수씨의 이야기는 자녀의 변화와 변하지 않은 엄마의 기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보여준다.

> 강주수: 아이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얘가 엄마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이렇게만 받아들여지는 거에요. … 그 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막 혼내고 막 이렇게 좀 저도 화를 같이 냈었거든요. … 자기는 엄마한테 대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부딪힐 일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갈등이 막 생겼죠 그런 거에.

딸의 방청소나 청결과 관련된 습관에 대해 딸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 온 서원희씨는 알아서 한다는 자녀의 말을 믿고 알아서 하도록 놔뒀지만, 변화가 없는 딸과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 했다. 서원희씨는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더 이상 잔소리 하지 않아도 엄마의 기대대로 학교 다녀오면 바로 씻고, 옷도 잘 걸고 방청소도 잘 해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딸의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엄마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하여 이것이 모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원희: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이제.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걸 믿었죠.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갈수록 변화는 없고 말로만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니까 저도 이제 대응하는 게 좀 신경질적으로 너 맨날 알아서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언제 내가 맨날 그랬냐고 또 그래요.

모든 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변화와 부모의 변하지 않는 모니터링의 조합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자녀가 자율성을 요구하지만 자신의 일상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이전과 같이 자녀의 삶을 모니터링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갈등으로 이어졌다. 갈등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책임감 있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야하기에 계속해서 자녀의 삶을 면밀히 살피며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윤성씨는 자녀의 일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자녀의 삶에 대해 세세히 알고 싶은 이윤성씨의 성향도 있지만 부모의 모니터링이 없을 때 자녀가 스스로 일상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윤성씨는 회사가 거주지에서 멀리 있어서 평일에는 회사 근처에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윤성씨의 아들은 매일 아침 제 때 일어나서 스스로 학교에 가는 것을 힘들어 하며, 늦잠을 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 아파서 늦는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윤성씨의 남편은 출근 전에 아들을 집 근처의 어머님 댁에 데려다 주고 학교 등교를 부탁하고 가는 일이 일상이었다. 엄마의 감독을 감시로 받아들이고 뭐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사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자녀이지만, 실제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컸다. 이러한 상황은 이윤성씨가 자녀를 성인이 되어가는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허용해 주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청소년기 자녀는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부모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시기(전상진, 정주훈, 2006)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자녀의 변화 정도와 엄마와 자녀 간의 갈등의 정도는 각 가정마다 달랐는데,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이전의 부모-자녀 관계, 주변 이웃,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어서 부모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해 온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변화를 더욱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 중 자녀의 청소년기를 지나며 자녀와 가장 크게 갈등을 경험하고 현재도 갈등이 진행 중에 있는 박수현씨는 첫 아이인 딸에게 많은 기대가 있었고, 딸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여 생활습관도, 학습도, 학교생활도 엄마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나며 딸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자 박수현씨는 연구참여자들 중 가장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박수현: 아이는 엄마 말만 다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거.. 그거 아니야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래서 저랑 트러블을 좀 많이 겪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잔소리

만 하게 되는 거 같고, 엄마는 나를 이해 못 하고.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아이랑 너무 관계가 좋았던 거 같았는데. 그니까 저는 저대로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고자 애썼던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높아진 자율성에 대해 수용하는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미연씨는 자녀의 방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자녀의 성적표와 친구들과 콘서트나 야외수영장에 함께 놀러 갔다 온 티켓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양육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왔던 정미연씨는 "숨기고 싶었겠지"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미연: 콘서트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지금. 갔다 왔다고는 나중에. 왜 얘기 안 했냐고 했더니, 아유 엄마 이건 또 몰래 가는 게 재미있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갔다 왔거나 들켰으면 얘기는 해요. … (중략) … 갑자기 뭐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문자를 보내요. 엄마 나 사실 몇 시 영화 예약을 해서 지금 친구랑 보러 가고 있다고.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갔다면, 뭐 숨기고 싶었겠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갈등의 정도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 특히 자신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의 허락과 상관없이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주변 또래친구들의 상황에 따라 더 증폭되거나 가시화되기도 했다. 청소년 자녀들은 주변 친구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보고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판단했다. 친구의 부모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녀의 표현에 따르면 "친구 엄마는 우리 엄마처럼 문자나 전화가 잦지 않다"고 한다. 자녀의 이런 이야기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준을 다시 생각하며 자신

의 행동이 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했다. 서원희씨는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자녀의 또래 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늦어 자녀와의 세대 차이를 늘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엄마들이 다르다는 자녀의 이야기는 늘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를 고민하게 했다.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을 자주 접하고, 관련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서원희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육행동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자녀 또래의 부모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원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밖에 외부활동 할 때 그러면 친구 표현에 의하면 어떤 엄마도 문자나 전화 안 한 대요. 근데 엄마만 유독 그런다고 친구들한테도 눈치 보인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막 9시, 8시부터 그러지는 않거든요. 최소 10시 반 11시 정도 되어야.. … (중략) … 내가 나이를 먹어서 다른 부모의 비에서 노파심이 있나? 그런 것도 있고요.

자녀의 성별은 자녀에 대한 엄마의 기대를 형성하여 자녀의 변화에 대한 엄마의 반응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자녀가 아들인 경우, 아들은 딸보다 자기개방이 적고 덜 살가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막상 아들의 자기개방이 줄어들고 아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생각보다 서운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주변에서 “재잘재잘 대는” 남자애를 못 봤다는 한 연구참여자는 주변에서 보는 청소년기 남자 아이들과 자신의 아들을 비교하며 “문 쾅 닫고 들어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실망도 크지 않았다. 자기개방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녀를 두고 “아들이라서 그런가 봐요”라고 이야기하며 변화의 이유를 성별에서 찾고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반대로 “아들치고는 말이 많은 편”이라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크

지 않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소년기 아들은 자기개방이 높지 않고 살갑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자녀의 변화에도 실망하지 않게 했고,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높아진 자율성 욕구는 기존의 방식대로 자녀를 대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연구참여자의 자율성지지 양육태도, 청소년기 이전의 부모-자녀 관계, 이웃, 그리고 자녀의 성별 등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녀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달랐다. 주변 이웃을 기준으로 볼 때, 혹은 자녀의 성별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얼마나 받아들일만한가 판단하고 있었고 이것은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약화시키고 있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사수하기 위해 부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이전과 달리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짜증과 막말을 듣는 상황은 “무시 당하는 느낌” 혹은 “가슴을 쥐어뜯는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짜증과 막말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탓하며 자책하기도 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때렸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으며, 대화를 나누다보면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밖으로 나가서 문자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자녀를 계속 가까이 하게 될수록 상처만 받는 것 같아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이를 멀리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변화를 꾀하며 대응하기 시작했다.

2. 갈등은 피하고 자녀는 살피기 위한 엄마의 대응

청소년 자녀의 자기개방 감소와 자율성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해 생긴 엄마-자녀 간 갈등은 그렇다면 자녀를 얼마나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자녀에게 어디까지 자율성을 허용해야 하며 적절한 규제는 어느 수준인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고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모니터링을 변화시키며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니, 살펴야 할 영역이 많아졌다고 이야기 했다. 청소년기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시기이다 보니 자녀의 스트레스나 마음 상태도 살펴야 하고, 또래관계가 중요한 시기이기에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도 봐야 하며, 학습상황도 체크하고 진로에 대한 의견도 나눠야 한다. 자녀의 활동반경이 커짐에 따라 육체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며 모니터링 하는 영역은 줄어들지만 자녀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지 더 적극적으로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녀를 살필 수 있었기에 비교적 단순했던 청소년기 이전의 모니터링과 달리 모니터링 영역이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사적인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에 대해 알고 싶은 영역은 확대되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알고자 하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니터링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변화시켜 간다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피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첫째,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를 위해 돌려서 묻고, 몰래 살피는 방식을 선택했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전에는 부모가 물으면 묻는대로 잘 대답했고, 자기개방도 부모가 알고 싶은만큼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이 된 자녀의 자기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며, 돌려서 묻고, 몰래 살피는 방식의 전략이 필요해졌다. 둘째, 자녀를 살피기 위해 구조화된 환경을 활용하였고,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해 알고 싶지만, 이전과 달리 자녀를 통해 직접 알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들었기에 자녀의 주된 활동 반경인 학교와 학원에서 오는 연락을 통해 자녀의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자녀와 함께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자녀가 생활하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구조화시켰다. 셋째, 자녀의 안전을 위해 소재와 귀가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힘썼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집 밖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범위가 넓어졌고, 이것은 부모로 하여금 소재와 귀가시간 파악을 위해 애쓰게 만들었다. 다른 영역과 달리 소재와 귀가시간 파악은 여전히 자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자녀를 살피는 영역이었다. 넷째, 자녀의 공부 문제에 있어서는 갈팡질팡하며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는 대입을 준비하며 학업에 매진하는 시기로 여겨지는 만큼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공부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좋은 성적을 위해 자녀의 삶을 구조화하고 통제해야 할지, 혹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한 발짝 물러나야 할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몰래 살피고 모르는 척 하기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의 자기개방이 줄어드는 것은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Keijsers et al, 2016).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자기개방이 줄어드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녀의 삶을 격려한다거나

잘못된 길로 향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등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청소년기는 자녀의 자기개방이 자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최적의 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부모가 자녀를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 이전에는 자녀를 직접적으로 살피며 모니터링 할 수 없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자녀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 편이었다.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자녀에 대해 묻고 상담하기 위해 학교를 자주 찾기도 했다. 그러나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한 이후부터는 부모가 학교에 오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자녀의 성적이 높은 경우에만 학교에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생각하여 학교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성적에 국한되어 있었다.

자녀의 자기개방이 자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내용이다.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친구들도 친구들끼리의 비밀을 부모에게 지켜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친구를 통해서도 자녀에 대해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신미금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 신미금: 중학교 이상 되니까 지가 얘기해 주는 거 이외에는.. 친구들도 이제 …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또 친구들도 비밀을 지켜주는.. 뭐 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 친구에 대해서 집에 가서도. 그러니까 … 더 모르게 되죠. 얘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더 모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학교 상담을 가 가지고 물어 보는 수밖에 없는데. 상담도 저는 애가 싫어해서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을 높이거나 혹은 자녀의 자기개방 외의 방법으로 자녀를 알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었다. 즉,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여 자녀의 자기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엄마들의 모니터링은 자녀와 직접 소통하며 모든 것을 공유하던 방식에서 돌려서 묻고, 몰래 살피며 모르는 척하고, 비밀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것이 갈등 없이 자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자녀가 숨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숨기기 시작하면 자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자녀가 정보를 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자녀를 통제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놔두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잔소리”를 안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잔소리”는 자녀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강요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자율성을 허용해주는 것과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연구참여자 자신의 잔소리고, 잔소리해도 자녀는 바뀌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만 나빠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잔소리 안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윤성씨는 특정 장소 출입을 금지하면 “숨길까 봐” 자녀에게 연락하여 어디에 있는지만 물어보고 PC방, 노래방 등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는 전략을 택했다. 어디에 있다고 하든지 한 번도 혼내지 않았기에 아들은 늘 솔직하게 있는 장소를 개방한다.

자녀가 원하는 만큼만 자기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거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도 전략 중 한가지이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전에는 “아이가 눈 앞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알려고 했다”는 안현주씨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신의 속마음이나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내용을 엄마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자, 자녀가 원하는 만큼만 대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녀가 자신에 대해 “들키지 않을 것들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안현주: 지나가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우와 저기 무슨 고

깃집 생겼네? 저런 거 맛있겠다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면 아이가 먼저 화두를 던질 수 있게끔 엄마가 계속. 나를 설명하기 보다는 이 아이가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지지 않는 것들. 내가 들키지 않을 것들로 엄마가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들을 마음이 있으면 말을 열어요.

이처럼 직접적으로 자녀의 상태나 마음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지나가는 사물이나 좀 더 객관화된 이슈들을 주제로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내용을 바꾸어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자녀의 세세한 일상에 대해 모두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보면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기에 우선 “들키지 않을 것들로” 대화를 이끌어 가다보면 어느 순간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도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었다.

또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자녀에 대해 알기 위해 자녀 “몰래” 살피며 “모르는 척”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녀에게 직접 묻지 않고, 자녀를 관찰하거나 살피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몰래 살피고 못 본 척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눈빛, 얼굴표정, 말투, 책상 낙서, SNS, 편지, 자녀가 한번이라도 언급한 친구,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구글 위치 정보, 자녀의 학교생활을 알려주는 어플 등 다방면으로 자녀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가 모르도록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자녀의 휴대폰이나 SNS는 대부분 부모가 보지 못하도록 잠겨있거나 비공개였지만, 부모들은 우연히 잠금이 풀려있는 상태를 발견한다면 이를 자세히 살피고 못 본 척 했다. 방안에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는데, 염탐하거나 우연히 발견한 엄마들의 공통된 반응은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는 것이었다. 아들이 중학생 때 자신의 잔소리 때문에 아들과의 갈등이 많았고, 아들이 친구들의 흡연 사건에 연루되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 한 강주수씨는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해 살피기는 하지만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고 자녀의 자기개방 감소를 막기 위해 안 보는 척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 강주수: 그 나이 때는 막 상관하는 것 같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안 건드리려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서 그냥 뒤에서 알아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 건드리면 싸우고 또 말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한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이러면 애가 아예 닫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랑 말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고. … 이 친구 사귀지마 저 친구 사귀지 마 친구 골라가면서 사귀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친구들 어떤 친구를 사귀나 저 친구가 어떤가 이런 거를 표 안 나게 제가 많이 체크하죠. … 저는 얘가 누굴 요즘에 자주 만난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모르게 탁 알아보죠. … 안 보는 척 하지만 많이 봐요.

이전에는 모니터링을 하다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발견되면 즉각 개입했었다면,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고 다음에도 또 살펴보며 자녀를 알기 위해 일단 주의 깊게 지켜보기만 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몰래' 살피기 전략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언급한 부분이었다.

스스로 모니터링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 배민정씨 또한 대부분의 모니터링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몰래'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독서실에 다니는 자녀가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학원이나 독서실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가보기도 하고, 체크 카드 사용 알림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며 자녀의 휴대폰 잠금이 풀려있을 때는 SNS를 살짝 보곤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자녀 몰래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니터링에 대해 언급할 때 종종 "간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배민정씨는 자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는지 자녀가 모를 것이라며 안 들키게 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들이 PC방을 자주 다니는 것 같은데도 신용카드 내역으로

PC방 출입내역을 남기지 않는다며, 엄마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남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웃음 짓기도 했다. 자녀도 자신을 몰래 살피는 엄마를 알고 있고, 엄마와의 갈등을 피하고 절충지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몰래 살피는 것뿐 아니라, 자녀에게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동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녀와 직접 대화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연구참여자들은 제3자를 통해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다. 학원선생님과 "아주 자주" 통화한다는 홍인선씨는 전화통화를 통해 자녀의 상황을 파악하고, 연구참여자 자신이 파악한 자녀의 상태를 전달하며 자녀의 학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자녀가 축구선수로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김민수씨는 축구를 포기하고 싶다며 전화한 자녀에게는 알겠다고 말하며 공감과 격려로 대화한 뒤 별다른 조언이나 개입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축구감독님과 통화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티나지 않게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축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도 했다.

> 김민수: 엄마 나 기숙사 생활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에요. …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 그럼 알겠다고 일단은 좀 있어봐봐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죠. … 감독님 제가 전화했던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 감독님이 바로 기숙사 찾아가가지고 애들 숙소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게 된 거에요. … 그 다음날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한테.. 엄마 나 그냥 기숙사 생활 할래요. (웃음) 잘 해결이 된 거에요. …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네? 그냥 그렇게 모른 척 하니까. 어제 감독님이 왔었대요. 아 그래? 감독님 어떻게 알고 가셨을까? (웃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를 살피고 자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기존방식으로는

자녀에 대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을 바꾸어 자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자율성을 허용하면서도 일단 지켜보면서 꼭 개입해야겠다고 싶을 때는 몰래 개입하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2) 구조화된 환경 활용하기

청소년이 된 자녀들은 활동반경이 넓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일상은 학교, 학원, 집 등으로 매우 구조화된 삶을 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살피고 알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몰래 행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녀를 모니터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조화된 삶 속에서 수동적 혹은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학원 출결과 숙제 여부는 학원에서 오는 문자로 받아볼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가 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면밀히 살피되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구조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전에 비해 엄마의 학교참여 빈도가 낮아지면서 학교생활은 자녀가 직접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영역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하지만 자신의 적극성만으로는 살필 수 없는 영역이기에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구조화된 시스템에 맡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게 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올 것이기에 학교나 학원생활을 크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아이 셋을 양육하느라 한 명 한 명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살필 수 없었고, 좀 더 독립적으로 양육하길 원했던 조윤지씨는 학교나 학원에서 한 번도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아이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래서 더 모니터링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학교나 학원생활에 대해 좀

더 안심하고 자녀에게 맡기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실제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자녀가 흡연과 시험부정행위에 연루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알지 못했던 자녀의 모습을 알게 되기도 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의 자녀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가기 전에 미리 연락하여 “선수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게 되는 구조화된 환경이 자녀로 하여금 특정 사건에 대해 스스로 부모에게 알리고 대화하게 만들기도 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것을 의지하여 자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살필 수 없는 환경에서 마치 자녀를 옆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가기도 했다.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녀와 갈등이 많았던 배민정씨는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집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때는 부모의 휴대폰 핫스팟 기능을 활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만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자녀와 24시간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며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자녀가 배민정씨의 뜻대로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배민정씨가 원하는 만큼만 인터넷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배민정씨의 자녀는 집밖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올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 나가보면 집 근처 카페 앞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민정씨는 집에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종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부모보다는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함께 있지 않아도 부모가 원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가 정해준 틀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자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배민정: 와이파이 깔았다가는 이제.. 제가 이제 24시간 얘랑 붙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나 없으면 100%인 거에요. 인터넷 하는 거지 … 이제 와이파이가 집에 가면 안 되니까 학원 갔다가 한 시간이 지나.. 한 시간. 집에 오는 시간이 한 십분 밖에 안 걸리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학원에서는 벌써 끝나고 갔다 그러는데. 안 오면, 동네 나가보면 커피숍 앞에 있잖아. 이렇게 와이파이 잡히는데. 거기서 서 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강효주씨는 여러 유해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인근학교에서 진로강사로서 강의를 하거나 동네 유해환경 단속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강효주씨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엄마 모임에 참석하고 학교에 찾아가며 이른바 “강남엄마” 스타일로 자녀의 삶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왔다. 그러나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러 사건에 휘말리며 경찰서까지 방문하게 되는 일이 생기자 강남엄마 스타일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녀를 풀어주는 대신 자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아들과 함께 유해환경 단속 봉사활동을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도장을 찍었고, 진로강사로 활동하며 자녀의 친구와 선생님들에게도 얼굴을 알려 자녀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강효주: (아들이랑) 같이 편의점 다니면서 금연 뭐 청소년한테는 술담배 금지 뭐 이런 팜플렛 같은 거 나눠주면서 … 네가 네 입으로 청소년들한테 팔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찔리라고. (웃음) 그리고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엄마 여기 서초구에 있는 경찰서나 보건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얼굴 다 알고 편의점에 있는 이 주변에 단속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 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경찰서를 간다

든지 걸린다든지 그러면 진짜 개망신이다.. … 그리고 이제 진로 강의도 그렇게 나가게 된 게, 여기 서초구 관내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진로 강의를 하거든요. 지 친구들이 다 깔렸잖아요. … 저 사람 ○○ 엄마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강의 나가면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쟤가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없게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무언의 컨트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짐에 따라 24시간 자녀를 볼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구조화된 환경을 활용하여 자녀를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지 않는 동안에도 자녀의 삶이 크게 엇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힘쓰고 있었다.

3) 소재와 귀가시간은 변함없이 체크하기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녀의 자율적인 선택과 활동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고, 본 것도 못 본 척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엄마들이지만 공통적으로 자녀의 소재파악과 귀가시간 파악에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자녀와 소통하고 있었다. 자신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리는 루틴개방(Routine disclosure)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개방하는 자기개방(Self disclosure)(Wuyts et al., 2018) 중,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는 자녀의 사적영역으로 인정해 주더라도 자녀의 루틴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체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자녀가 안전한 곳에서 잘 있는지, 언제쯤 집에 돌아올 것인지를 알기 위해 자녀의 높아진 자율성과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모니터링의 목적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녀가 범죄, 비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돕고 보호하기 위함에 있음을 알게 한다. 자녀가 청

소년기 이전에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반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의 시야 밖에서 자율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에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귀가시간이 늦어진 것도 엄마들이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소재와 귀가시간은 끝까지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안현주씨의 이야기는 부모로서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언제 들어올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 안현주: 어딘가를 가는데 또 비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어딜 가서 뭘 하든.. 나한테 굳이 허락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은 엄마 아빠가 네 보호자야. 자식이 분명히 어딜 가 있는 거고 누구와 있는 거고 무엇을 하며,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올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맞는 거고, 너도 엄마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 거야. 그게 가족인 거고. 그게 싫으면 너는 너 혼자 살아야 돼. 우리는 너의 보호자고 그거 어른에 대한 예의야.

안현주씨는 자신의 소재와 귀가시간에 대해서도 사적인 영역을 주장하는 자녀에게 소재와 귀가시간에 대해서는 엄마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연구참여자의 생각을 자녀에게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모습은 자녀 또한 연구참여자의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자녀를 살피지만 이것이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녀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거나 자녀의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녀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십번 전화를 하거나 자녀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자녀와 갈등

을 피하고 싶고, 갈등 중에 자녀에게 상처 받는 것이 힘들어서 아이를 멀리하고 있다는 이윤성씨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윤성씨는 자녀를 통해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자, 전화나 문자를 통해 파악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전략을 취하기도 했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자신의 소재를 보고하지 않아도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있었다.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녀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윤성씨에게 알림이 와서 자녀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측 수 있도록 했다.

이윤성: 보통.. 얘가 제 카드를 써요. 제가 이제 신용카드를 줘서. 그리고 신용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구나. 어디 GS마트에서 긁고 지금 어디에 있구나.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요. 그리고 어차피 얘가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에서 분명히 친구들 만나서 뭐 삼겹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무한리필. 긁으면 삼겹살 먹은 거고. 이렇게 동선이 어느 정도.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새롭고 자극적인 감각과 경험을 얻고자 하는 성향인 감각추구성향이 많은 청소년기(Arnett, 1994)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을 수 있다. 또래동조성으로 인해 또래집단에서 하는 행동을 무분별하게 동조하여 위험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와의 갈등을 감수해서라도, 또한 다소 엄한 규칙을 정해서라도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얼 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13명의 엄마들은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규칙을 세우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규칙을 정해 같은 규칙을 세 번째 어길 때부터는 엄하게 혼내며 아이들을 양육해온 정미연씨는 자녀의 행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규칙

을 세웠다. 이동할 때, 혹은 귀가시간이 엄마가 아는 것보다 늦어질 때는 꼭 연락을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휴대폰을 압수하겠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정미연씨의 자녀는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었다. 실제로 명확한 규칙이 세워졌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질문이나 연락으로 자녀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규칙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확인할 수 있어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다(Hayes et al., 2007). 신미금씨도 동일하게 규칙을 세워 소재를 파악하고 자녀의 귀가시간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신미금씨는 이를 “규칙 아닌 규칙”이라 표현하며,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미연씨와 신미금씨는 모두 자녀의 일상생활에 일일이 개입하기보다는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고자 애써 온 연구참여자들이다. 그러나 정미연씨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규칙을 정해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매우 엄하게 대응한 반면, 신미금씨는 자유롭게 놔두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 정미연씨의 자녀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 주어지게 됨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한 반면, 신미금씨의 자녀는 확고하고 규범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해당 규칙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느슨한 규칙(Parkin & Kuczynski, 2012)으로 인지했을 수 있다. 자녀가 가정의 규칙을 따르는 데에는 확고하고 명시적인 규칙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미연: 너무 늦어지거나 이러면 저 걱정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딱 했는데 막 안 받거나. 막 이러면 이제 문자로 막 넣어요. 너 몇 번 이상 너가 안 받으면 나 너 핸드폰. 저도 협박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했을 때는 없앨 거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동안 이제 애한테 삼세판을 항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것도 삼세판을 하니까 지금도 그럴 것 같은 건지, 그건 지켜주는 것 같아요.

신미금: 밤 늦게 뭐 친구랑 뭐 논다 이러면, 어디에서 뭐 피시방에서 노는지 영화를 보는지 뭐 딴 동네에서 노는지. 그리고 친구 누가

> 꼈는지. 그거 얘기해 주는 게 규칙이죠. 따라 주지 않을 때는 제가 막 전화를 하죠. … (중략) … 그거는 이제 한 60%는 지켜지고 40%는 좀 안 지켜져요. 지도 뭘 걱정하냐? 내가 알아서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 아닌 규칙?

규칙이 많다고 해서, 자녀의 루틴에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정해진 규칙과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해주고 있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귀가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와 상의 하에” 혹은 “정해진 경계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며, 부모와 함께 상의하고, 그 후에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자녀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 안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것은 자녀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물리적 안전 뿐 아니라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도인 것이다. 엄마들은 자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자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것을 ‘안전’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 역시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소재나 예상되는 귀가시간, 혹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잘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청소년기이지만, 청소년들도 자신의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모의 도움과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Smetana et al., 2009)을 확인할 수 있다.

4) 자녀의 공부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마음

자녀의 공부는 연구참여자들 중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영역이었다. 상대적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많이 허용해오던 연구참여자들도 공부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욕심을 내기도 했고, 공부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자율성을 허용하기도 했으며, 몰래 살피는 주된 영역이 공부이기도 했다. 자녀의 공부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를 모니터링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으로 등장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학습과 성적에 대해 마음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성정하여 판단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마음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라도 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좋은 성적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며 싸우고 있었다.

> 안현주: 두려운 건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학습을 좀 더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이가 정말 잘 자라는 건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정신 건강하고. 반듯한 아이로 키우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들의 내적 갈등에는 무엇이 자녀를 위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깔려있었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안현주씨의 이야기에서 엄마들의 고민이 드러난다.

고1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신미금씨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습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자녀와 갈등이 될까 싶어서 자녀 몰래 체크하고 마음 졸이거나 안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신미금: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조금 그런 거를 관리해야 되나 이제 공부

도 좀 안 한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반은 드는데, 막상 내가 이거를 관여를 해서.. 안 해서 너 이거 왜 이거 수행평가 안 했어. 까지 얘기를 하면.. 얘가 진짜 짜증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에요. 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알아서 하는데.. 엄마들은 그거 있잖아요. 몇 시까지 제출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제출하기를 원하는데.. 저번에 이제 그걸(앱) 보고 얘가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너 그거 제출 안 했어? 그랬더니, 할 거야. 이러는 거에요. 나중에 (앱으로) 보니까 55분쯤에 그냥.. 5분 남겨 놓고 제출을 하더라고요.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부모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놔두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도 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들은 자녀의 반응에 대해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놔두자" 혹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럴까"라고 생각하며 자녀의 공부를 위해 자녀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맞춰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고등학생이 상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엄마들에게 있어서 청소년기 성공적인 양육은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주수: 시험 때나 수행평가 뭐 준비하고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제가 뭐라 안 하죠. 신경을 쓰죠. 그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도 애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는 간식도 해줘야 되고 또 학교 일찍 오고 하니까 좀 시험기간이나 시험 볼 때나 아니면 수행평가 이런 거 기간 때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좀.. 너무 예민해지지 않게.. 먹는거나 그런 거 또 시간 맞춰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좀 있죠. 다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들은? 눈치는 보죠.

오미영: 고등학생 알다시피 수행평가 뭐 학원숙제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피곤하고 잠을 못 자니까 좀 예민하구나 하고 제가 조금 인정해주는. 만약에 중학교 같았으면 어림반푼어치도 없을텐데 고등학

교 됐으니까 내가 참자하고 좀 봐주는 것도 있어요.

청소년 자녀를 둔 많은 엄마들이 자녀의 성적을 밀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상황이다 보니, 그렇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다름'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학구열이 높은 서초구에 거주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조윤지씨는 자녀에게 학습을 강요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고 있는 자신의 양육방식을 이야기하며, 다른 부모들은 얼마나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을 가리키는 지표가 되는 한국사회에서 그럴 수 있는 부모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였다.

조윤지: 푸시하거나 시간 없이 막 학원 돌리거나 이러지 않게 했던 점에서 저는 좀 다른 부모들이랑 좀 다르지 않나 … 아주 꼭 안 되는 거 외에는 자기가 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편인데 저는. 다른 부모님들은 얼마나 그럴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웃음) 제 주변에는 다 못하더라고, 그렇게. 시간마다 막 체크하고. 뭐 학원 갔냐. 갔다 오면 엄마한테 연락해라. … 한국 부모님들은 열에 한 여덟 명은 자율적으로 두지를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입시를 앞둔 부모님이라면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들을 모니터링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공부에 대해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공부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모의 모니터링은 자녀가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지대 안에 속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Jaccard et al., 2010)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녀의 공부가 과연 안전지대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녀에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높은 성적을 받아오길 요구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 안전을 보장해줄 것 같지만, 현재 정서적으로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엄마들로 하여금 자녀의 공부에 대해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3. 대응의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엄마의 관점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니터링을 변화시키며 자녀의 자율성과 부모의 규제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애썼다. 연구참여자마다 변화의 정도나 그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자녀의 자율성을 좀 더 허용해주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갈등에 대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어떤 연구참여자에게는 목표한 대로 갈등이 해소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어떤 연구참여자에게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소년기 발달적 변화로 비롯된 갈등이 해소된 연구참여자들은 “뭐라고 안 하니, 싸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삶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자녀의 삶을 이전만큼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자녀의 일상을 주시하며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 홀로 이겨내기 어렵거나 자녀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여서 부모가 꼭 개입해야 할 순간이라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있었다. 엄마들은 자녀에 대해 알게 되는 지식의 양이 줄어들고, 자녀의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사적영역과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변화한 엄마에게 자녀들은 오히려 자기개방 수준을 높였고, 조언을 구하며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자기개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던 자녀가 엄마의 변화 과정 속에서 다시 자기개방 수준을 다시 높이는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다.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에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에 대해 알기가 어려워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었고, 일상에서 갈등이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관계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힘겨워했다.

연구참여자들 간의 이러한 차이는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관점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모니터링 변화를 통해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크게 달라지고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고 수용하기 2)엄마의 기준을 강요하기: 자녀를 놓지 못하겠어요 3)좌절을 경험하고 강요 멈추기: 강요해봤자, 관계만 악화될 뿐 이라는 유형이 나타났다.

1)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 다시 말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강요하지 않고 주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경우,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따라 보다 수월하게 모니터링에 변화를 주며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에도 진전이 생겼다. 7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은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라는 것이었다. “각자 열심히 살자”, “자식이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죠” 등 그 표현은 다양했지만 자녀가 자신에게 속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녀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엄마의 양육행동으로 드러나, 자녀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을 택해오고 있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버스를 혼자 타보도록 하거나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작은 일들로 드러났으며, 청소년기에 진입했을 때는 주로 학업과 관련된 일화가 많았다. 자

녀가 친구와 놀다가 학원에 늦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선생님과 스스로 대화하며 책임지게 하는 것부터 자녀와 진로에 대해 소통하며 자녀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안 아팠으면 극성 엄마였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한 정미연씨는 몸이 아파 평생 데리고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을 택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 이 아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이를 독립된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엄마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게 만들었다.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해 온 이 유형의 연구참여자들도 본격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가 되자, 자녀의 학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세히 지도하며 앞장서서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내적으로 갈등하기도 했다. 박유리씨는 자녀가 중학생 때까지 자녀의 알림장 한 번 들여다 보지 않으며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학교생활을 책임지도록 양육해 왔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된 자녀의 학교 학부모 총회에 다녀와서 많이 놀랐다고 한다. 모든 이야기가 입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녀의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유리: 저는 정말 알림장 한 번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이걸 챙기고 이러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키웠거든요. … 근데 이제 어제 학부모 총회 갔다 와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너무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에요. 저는 되게 지금까지 너무 알아서들 다 하게 했는데. 거의 입시 설명회를 온 것 같은 그런. 그런 모든 게 다 입시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지금까지 아무 관여를 안 했던 엄마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좀 고민이 되죠. 제가 엄마로서 정말 잘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좀 가장 고민이죠. 지금은.

연구참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관리”, “대입준비”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를 위해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놀랐던 박유리씨는 자녀의 성적에 쿨하지 못한 자신을 보고 한 번 더 놀랐다. 자녀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자녀가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오자 하루종일 기분이 우울한 자신을 보며 “쿨한 척 했지만 쿨하지 않구나” 생각했다. 박유리씨 뿐 아니라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는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강요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고, 자녀의 성적으로 인해 크게 연연해 하지는 않았다.

자녀를 자율적으로 키워오기 위해 애썼으며, 현재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좋고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도 높은 오미영씨의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체크가 일상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미영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직접 아들을 가르쳐 왔고, 함께 거실에서 공부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거실에서 엄마의 모니터링 하에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부하다가 컴퓨터를 하지는 않는지, 혹은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엄마는 밤늦도록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공유했다.

> 오미영: 왜냐하면 엄마가 거실에 있어야 애들이 아무래도 컴퓨터도 덜하게 되고 핸드폰도 덜 쳐다보게 되니까 그냥 내가 거실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애들은 그걸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의도도 있었는데, 계속 그게 그냥 생활화 되니까 그냥 아 내 자리구나.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중략)… 마지막에 뒷정리를 하거나 잘자 하는 거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녀와의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

았다. 자녀가 학생이기에 공부하는 것을 중요시 여길 뿐, 자녀에게 좋은 성적을 원한다거나 엄마의 기준만큼 공부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엄마의 기준을 강요하기: 자녀를 놓지 못하겠어요

자녀를 "놓지 못하고" 연구참여자가 생각하는 "자녀를 위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우, 모니터링이라는 양육행동 변화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4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스스로를 "잔소리 많은 편", "간섭이 많은 편", "유달리 아이를 신경 쓰고 챙기는 스타일", "하나하나 해주는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고 조언하며 개입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본격적으로 입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고 학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시기이며, 한국사회에서 중고등학생은 학습을 중심으로 그 삶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학업성취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넘어 사회적 성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박영신, 김의철, 2003).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잔소리와 간섭"은 주로 "공부" 영역에서 엄마의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될텐데'라는 엄마의 생각은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잔소리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자녀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녀를 '몰래' 살피거나 자녀의 방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특별히 자녀의 공부와 관련된 영역에서만큼은 강요와 잔소리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영역에서 엄마의 모니터링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공부 영역에서의 강요는 자녀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고 있었다.

자녀가 "엄마 품 안에서 자라왔다"고 이야기 한 박수현씨는 청소년기

를 지나며 엄마 품을 벗어나고자 하는 딸로 인해 정서적으로 큰 힘겨움을 겪고 있었다. “엄마 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엄마의 말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의미였다. 이로 인한 갈등은 공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부하는 문제에 있어서 엄마의 지시대로 잘 따르던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성적이 떨어졌고, 이것은 박수현씨에게 불안감을 가져왔다. 한국사회에서 좋은 성적이 좋은 대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소위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박수현씨는 다른 건 몰라도 학습만큼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관여하고 싶어했다. 이것은 딸과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강요’하며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임을 강조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이후에 대학에 갔을 때 결국 후회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박수현씨는 아이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상담을 받으며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놔두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이가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커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상담과 교육의 내용보다는 연구참여자 자신이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성적의 중요성이 마음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은 엄마를 원망해도 나중에는 엄마 마음 이해하겠죠?” 라고 연구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박수현: 제가 그런 불안감의 표출이 아닐까.. 제 아이는 잘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못 한다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결과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못 따라줄 게 분명하니까.. …(중략)… 제가 손을 못 놓겠는 거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안 하고 있는데 너는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근데 아이가 안 했던 기간

이 있는데.. 조금만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정말 고등학교는 눈에 불을 켜도 힘든데..

박수현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사회의 학벌주의 분위기가 엄마들이 자녀의 공부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자녀의 대입을 위해 공부를 강요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한국사회에 살고 있지만, 어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 유형에 속하여 자녀의 공부에 연연하지 않기도 한다. 그 차이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유달리 아이를 신경 쓰고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근저에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분리시키지 못한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는 반면, 이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인생이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 같은 예상되는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실패'를 막기 위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녀가 자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청소년기 전까지는 자녀가 부모의 지도 아래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이런 생각이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관점으로부터 비롯된 행동들은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도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에게 자율성을 보다 허용하며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다. "자식을 좀 내려놓고 독립체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다"는 배민정씨의 이야기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천하기 어려운 엄마들의 현실을 보게 한다.

배민정: 시험이 걸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성적이 걸린 거니까. 막 이제 보다보다 안돼서 챙겨주는 거에요. (웃음) 바로 이게 이제 안 챙겨주면 바로 막 이제 수행이 점수 팍 깎이니까 그걸 또 못 보는 거에요, 제가. … 잘못되어가지고. 이거 한 번으로.. 애가 깨닫게 해야 되는데, 성적 떨어지더라도.. 그죠.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인생이 달린 거니까.. 자식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보는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 엄마가.. 엄마가 몇 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있는 엄마도 있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3) 좌절을 경험하고 강요 멈추기: 강요해봤자, 관계만 악화될 뿐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 갈등이 있더라도 자신의 강요로 자녀를 더 공부하게 한다거나 성적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엄마의 강요는 자녀를 더 힘들게 하고 갈등을 지속시켜서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강요를 멈추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갈등이 해소되며 자녀의 자기개방이 많아지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변화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강요가 자녀의 높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관계만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공부 강요로 인해 자녀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좌절과 어려움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양육 방향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했고, 자녀가 정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신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도를 찾게 만들었다. 가장 많은 사례인 9명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세부적으로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밀착하여 관리해왔는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공부 영역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좌절을 겪은 후 관계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자녀의 학습과 진로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뛰어가던 안현주씨의 경우, 자녀가 기대했던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는 자녀의 성적이 연구참여자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안현주씨는 부모교육과 상담, 아이양육 관련 전문서적 등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며 자신의 이런 생각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고, 자신의 기대와 열심이 자녀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한 사람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안현주: 뭘 이렇게 성공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힘을 받아가지고 막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성공경험은 성공경험으로 와 재밌어. 그러니까 엄마 됐지? 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한번으로 그냥 땡 쳐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면 그냥 걔는 그게 재미로 끝나버리는. 허탈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내 노력에 대한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확 사라져버리니까. … 이렇게 하다가는 관계도 망치는 거가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봐야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 … 뭘 하든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강주수씨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성적에 대한 욕심이 더욱 크게 생겼다고 한다. 이것저것 학원을 많이 다니기 시작한 자녀의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자녀의 성적에 기대를

걸고 잔소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욕구 증가라는 변화와 맞물리며 자녀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갈등이 너무 커지자 남편의 권유로 전문가 강의를 찾아 듣게 되었고,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녀에게 공부로 “잔소리”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강주수씨가 자녀에게 “잔소리” 하지 않고 다정하게 대할 때면, 자녀의 자기개방 수준이 매우 높아진다고 한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자녀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게 자리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현재도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둘째는 반대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율적으로 키우기 위해 애써왔지만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공부에 욕심이 생겼고, 자녀에게 공부와 높은 성적을 강요하여 자녀와 큰 갈등을 겪은 후 다시금 자녀를 독립적 객체로 바라보기 위해 애써 관계를 회복한 경우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 왔기에 자녀를 한 번도 온전히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던 황수지씨는 남편의 직장일로 같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녀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때 그 간의 공백을 느끼게 되어 자녀를 온전히 “서포트” 하고자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를 “서포트” 한다는 것은 결국 자녀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자녀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황수지씨의 공부 강요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자퇴를 고민하며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부모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말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황수지씨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해봤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가 힘들어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중이었다. 이전에는 자녀가 자신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갈등과 어려움을 계기로 자신과는 다른 자녀를 자세히 살펴 자녀의 성향을 이해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독려하며 스스로의 일을 책임지도록 하

는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남윤혜씨 또한 첫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육아휴직을 했고, 자녀를 열심히 케어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공부에 대한 케어로 집중되었다. 그 때 자녀와의 갈등이 극심했고, 자녀도 매우 힘들어했다고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강의를 찾아 듣고 책으로 공부하면서 자녀를 "놔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변화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 남윤혜씨가 강요를 멈춘 이후, 청소년기 이후 줄어들었던 딸과의 대화가 늘어나는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남윤혜씨는 여전히 자녀의 성적과 자율성 중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 내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자녀가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자녀가 수업을 듣지 않아 대학입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오자, 고민 끝에 결국 자녀 대신 수업을 들어주기도 했다. 자녀가 알아서 책임지도록 하고 싶지만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 남윤혜: 마음 같아서는 놔둬서 알아서 책임지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석이 되거나 어쨌든 못 챙겨가면 결국 애한테 마이너스고 그게 이제 뭐 대학을 갈 때도 영향을 주니까.. 챙기고는 있는데. 저도 계속 거기서 이제 갈등인 거에요. 그래도 냅둬야 애가 챙길 텐데.. 제가 끝까지 못 놔두고 결국은 제가 챙겨주거나, 뭐 제가 체크를 해주거나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 선을 못 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다 고등학교 때까지다.

학벌주의 분위기의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자녀를 독립적인 객체로 바라보며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공부 강요, 좌절, 교육, 노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 이들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에 좌절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강의를 듣거나 책으로 공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실제적인 적용을 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여전히 자녀의 공부와 자율성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부모교육은 엄마들로 하여금 자녀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고, 자녀에 대한 조바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노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부모교육은 연구참여자들의 “노력”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Burr와 동료들(1993)이 가족의 전이기 변화에 잘 대처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한가지로 꼽은 예견적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의 역할을 부모교육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에 관한 지식이 높아지고(이사라, 박지숙, 2010), 이로 인해 자녀의 성장과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스스로의 양육방식을 돌아보고 변화를 꾀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관한 공부와 부모교육 등을 통해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이 자녀가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며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받아들여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부모도 자녀의 성장에 발맞춰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력을 얻고 있었다.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부모들의 고군분투를 좀 더 수월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

4. 핵심범주

핵심범주는 연구를 통해 발견한 다른 모든 범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다른 범주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Corbin & Straus, 2015). 본 연구에서 발견한 핵심범주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갈등에서 관계의 변화로 나아가기”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와의 갈등에서 머무르지 않고 관계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들의 적응과정의 시작은 청소년 자녀의 변화였다. 자녀의 자율성 욕구 증가라는 변화는 연구참여자와 자녀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갈등은 연구참여자들이 모니터링이라는 양육행동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이유였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변화를 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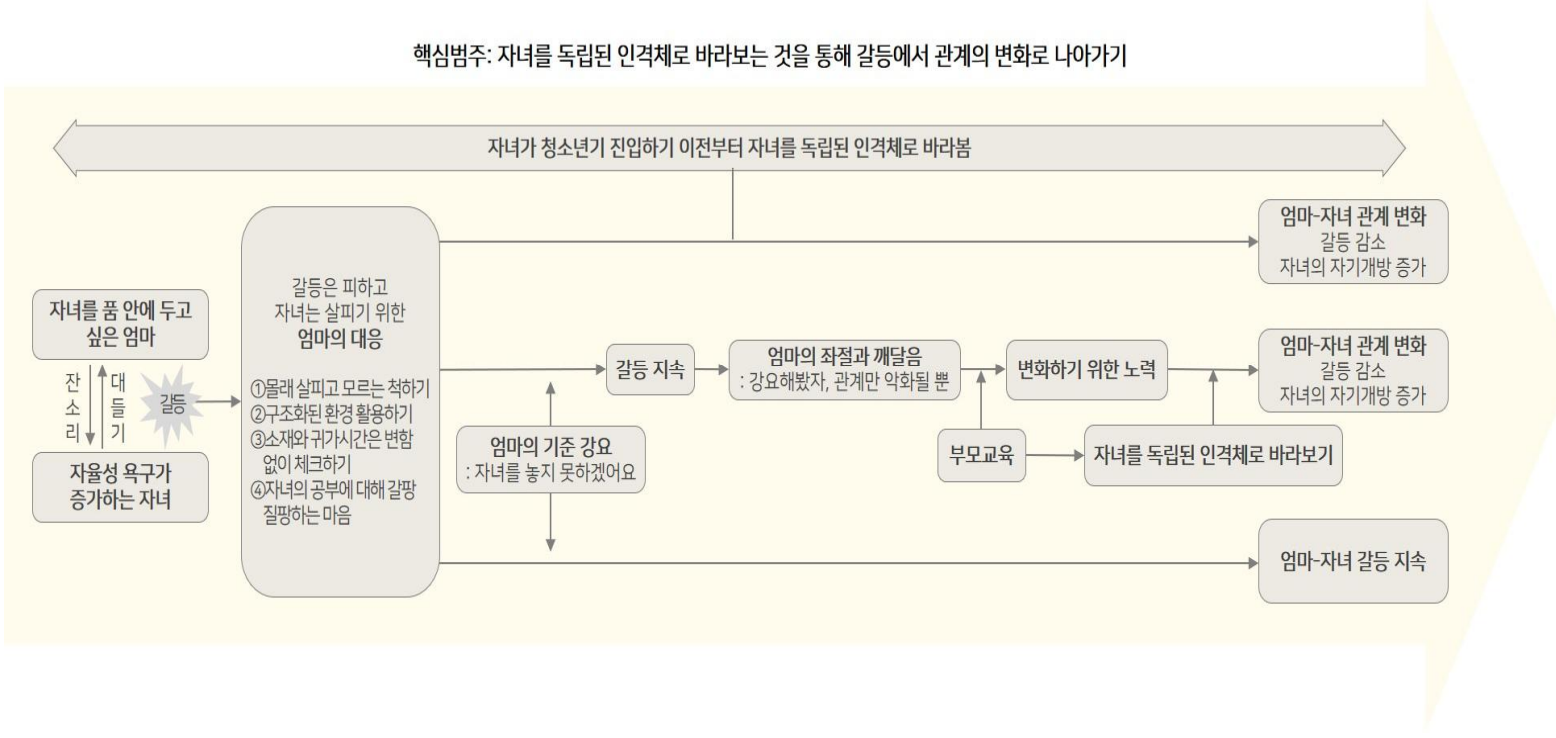
연구참여자들은 모니터링 방법, 영역 등에 변화를 주며 자녀와의 갈등에 대응했다. 그것은 자녀를 몰래 살피고 모른 척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구조화된 일상을 활용하기도 했다.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을 파악하는 루틴 모니터링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 부분이었으며,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의 방법과 영역에 변화를 주며 대응한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는 엄마들의 경우, 모니터링 변화는 긍정적인 관계의 변화로 이어졌다. 반면,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없는 경우, 특별히 공부 영역에서 엄마의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하게 되어 지속적인 갈등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엄마라 할지라도 자녀와의 갈등을 통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을 경험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경우, 자연스

럽게 엄마들의 행동이 변화하며 갈등이 해결되고 자녀의 자기개방이 늘어나는 등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녀의 자율성 욕구 증가라는 발달적 변화에 따른 엄마의 적응과정이 긍정적인 관계의 변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2] 분석결과의 통합적 모형

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에 따른 발달적 변화에 대응하여 어머니가 모니터링을 변화시키며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이전과 같이 자녀를 품안에 두고 싶은 연구참여자들의 마음과 자녀의 높아진 자율성 욕구는 충돌하며 갈등이 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은 갈등을 피하는 동시에 자녀를 살피기 위해 모니터링에 변화를 주며 자녀의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적응과정이 자녀와의 관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들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자녀의 발달적 변화는 자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자 했던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모니터링 방식과 충돌하였고, 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자녀가 청소년기 진입 이전부터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변화를 더욱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변이웃의 변화나 갈등 정도는 연구참여자 자신이나 가족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아들의 경우에는 딸보다 친밀함이나 살가움에 대한 기대가 적어서 막상 자녀의 변화나 갈등 상황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모니터링 변화는 이러한 자녀와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됐다. 연구참여자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자신의 모니

터링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 내용은 첫째, 자녀의 이야기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기도 하고, 돌려서 묻기도 하며, 원하는 만큼만 개방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기도 했다. 이것은 자녀가 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한, 자녀의 일상을 몰래 살피며 모른 척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집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자녀를 살피기 위해 구조화된 환경을 활용하고 있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에서 오는 문자나 연락 등을 활용하여 자녀의 현 상황을 파악하거나 추측하고 있었다. 때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화된 환경을 만들어서 자녀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셋째,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 파악에 더욱 힘쓰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자녀와의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을 파악하고자 했다. 자녀가 자신의 소재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우기도 했다.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영역은 부모에게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공부는 자녀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복잡한 마음을 갖게 하는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높은 학업성취를 위해 자녀의 삶을 몰아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모니터링 변화라는 대응의 결과는 연구참여자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었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변화를 통해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에 진전을 보이는 반면, 어떤 연구참여자는 변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객체로 바라보고 있는지, 언제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유형으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갈등에 맞닥뜨렸을 때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다 수월하게 모니터링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자녀도 편안하게 자신을 개방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엄마의 기준을 강요하기' 유형으로, 자녀와의 갈등이 생김에 따라 모니터링을 변화시키긴 하지만 자녀에게 자신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자녀의 공부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좌절을 경험하고 강요 멈추기' 유형으로, 자녀에게 공부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기준을 요구하지만, 해봤자 관계만 악화된다는 사실에 좌절을 경험하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교육이 연구참여자의 인식 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주요범주를 아우르는 핵심범주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갈등에서 관계의 변화로 나아가기"로 드러났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적응과정이 건강한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엄마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자녀와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갈등이 해소되고 자녀와 보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더욱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로 나아가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들(강버들, 2020; 김소연, 2017; 이영미, 한재희. 2013; 최정아 외, 2021)에서도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려놓음', 혹은 '거리두기'라는 표현으로 기술되며 자녀양육 경험의 핵심내용으로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주된 경험일 뿐 아니라 어머니들의 모니터링 변화라는 대응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엄마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

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노력의 결과로 건강한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노력하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없는 경우, 즉 여전히 자녀를 자신에게 속한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자녀의 변화에 발맞춰 모니터링 전략이나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기준에서 청소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부영역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단순히 잠깐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변화에 그치고 있었다. 진정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자녀의 청소년기를 지나며 부모-자녀 관계가 보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바라볼 필요성, 즉 부모 또한 자녀로부터 개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개별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로 여겨져 온 Blos(1967)의 2차 분리-개별화 이론과 Bowen(1967)의 자기분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Blos(1967)는 유아기 자녀가 생후 3년 간 어머니로부터 분리-개별화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Mahler(1975)의 이론을 발전시켜 청소년기에도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2차 분리-개별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리하였다. 또한, Bowen(1967)은 가족체계 내에서 구성원들이 융합되지 않고 각자의 정서적, 인지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Blos(1967)의 2차 분리-개별화 이론은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가 정체성을 획득하며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자녀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Bowen(1978)의 자기분화 개념은 분화의 대상이 자녀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내적인 개별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개별화되는 특정 내용을 상세히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를 지나며 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녀 뿐 아니라 부모 또한 자녀를 독

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며 자녀로부터 개별화 되어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Blos(1967)가 2차 분리-개별화 이론의 토대로 삼은 Mahler(1975)의 분리-개별화 이론에서도 자녀가 분리개별화를 이루어가는 동안 어머니 또한 변화하는 유아에 맞는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조희연, 2019). 자녀의 변화에 맞게 양육자도 함께 변화하며 분리-개별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부모-자녀 간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어머니의 개별화 과정은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개별화의 과정을 겪으며 고군분투했다. 갈등과 극복의 과정을 거쳐 보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인내했으며, 부모교육의 도움을 얻기도 했다. 이는 가족생애주기의 주요개념인 발달과업이 가족구성원들이 해당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기 가족과 관련된 발달이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부모가 청소년 자녀로부터 개별화되는 과정을 부모 입장에서 보여주고 이를 이론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부모의 개별화를 살펴보는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노력'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와 잘 지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부모교육을 통해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신에게 속한 소유물이 아니며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임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갈등이 해소되고 관계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등 건강한 모니터링 변화가 일어나, 변화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부모교육은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엄마들은 모니터링 변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 다시 말해, 계속해서 자녀를 엄마의 품 안에 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을 앞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다수의 아동 전문가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양육의 기본 전제로 제시하고 있으며(배재학, 2021),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부모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족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부모가 자기 자신과 부모됨을 이해하고 자녀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양육태도를 습득하며, 자녀를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 명시하며(가족센터, 2022),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를 독립적인 주체로 존중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으로 인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그에 맞춰 부모들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내 아이니까'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선희, 윤재희, 2020).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교육에 더욱 힘을 싣고 이러한 교육에 부모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실제 부모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의 변화나 부모-자녀 간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교육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실제 자녀에게 변화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부모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변화의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지나갔던 연구참여자

들은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독립된 주체로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교육은 꼭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에만 국한하여 포함시키기보다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강의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부모교육 웹사이트인 “좋은부모 행복한 부모”에서 예비부모 혹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자녀를 한 사람의 독립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부모교육에 모니터링과 관련된 실제적인 지침이 포함된다면 부모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위해 부모 모니터링 팁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어, 정보에 매우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에서도 정부기관인 사회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부모를 위한 웹사이트(the australian parenting website)”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보로 모니터링과 관련된 실제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부모교육 웹사이트에서 부모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에서 자녀의 사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라 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모니터링은 부모의 좋은 양육행동(good parenting)의 요소 중 한 가지(Devore, Finsburg, 2005)로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양육행동인 만큼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부모들이 일상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엄마들의 다양한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청소년

기에는 자녀의 자기개방이 줄어들고 사적영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그 방향성을 밝혀온 바 있다(나유미, 임연진, 2002; 손승영, 2009; Keijsers et al., 2016; Moilanen et al., 2009; Son & Choi, 2013; Tilton-Weaver & Galambos, 2003).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 지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엄마의 모니터링이 자녀의 자기개방을 증가시키기 위해 몰래 살피거나 자녀의 구조화된 일상을 활용하여 자녀의 삶을 주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녀가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자녀의 신변을 파악하기 위해 소재와 귀가시간 파악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 자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변화시킨 구체적인 모니터링 전략은 기존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바탕으로 어떤 모니터링 전략이 자녀의 일상을 살피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는지, 혹은 자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등의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청소년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엄마들의 모니터링과 자율성지지 양육행동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엄마들의 모니터링은 자녀의 높아진 자율성 욕구에 발맞춰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래 살피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자율성 허용의 방향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공부 영역에 대해서는 내적 갈등이 크게 나타났다.

먼저, 엄마들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는 원하는 만큼만 개방할 수 있었으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

아졌다. 자율성 발달보다는 관계성을 더 중요시 여기며(최인재, 2006; 현정환, 2007) 부모에 대한 순종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주의 문화(Brown & Mounts, 2007)를 가진 한국사회이지만, 청소년 자녀의 높아진 자율성 욕구에 발맞춰 엄마들도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해 알 수만 있다면 더 알고 싶어했다는 점에서 엄마들은 자녀가 언제든 자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모니터링을 부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행동 중, 자발적 기능을 장려하는 것(PVF)(Benito-Gomez et al., 2020; Soenens et al., 2007)에 가깝게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참여자는 자녀를 '몰래' 살피는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는 Hawk와 동료들(2016)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자녀를 둔 스웨덴 부모 97명 중 60%가 몰래 살피기(snooping)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서구사회에서는 자녀를 몰래 살피는 것이 부모로서 정당하지 않은 양육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자녀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이영미, 한재희, 2013; 조경진, 김은정, 2009),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가 매우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 이견이 거의 없는 한국사회(문무경 외, 2016)에서는 '몰래'하는 방식을 택해서라도 부모가 자녀를 살피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일상을 몰래 살피고 개입하는 것이 과연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인가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의견대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구참여자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기 자녀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부모의 조언과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몰래 살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갈등을 피하는 임시방편적 전략일 수 있다.

Hawk와 동료들(2016)은 몰래 살피기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일 뿐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사생활을 크게 침범하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몰래 살피기는 청소년 자녀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의 몰래 살피기로 침해된 사생활에 대한 경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거나 부모와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는 길이라 말한다. 호주의 정부기관인 사회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부모를 위한 웹사이트(the australian parenting website)”에서도 청소년 자녀를 모니터링 하는 부모에게 자녀를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자녀가 좋은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며,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는 부모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신뢰하라는 것이다. 자녀 또한 부모가 자녀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믿고 부모가 자녀 간에 상호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자녀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부모를 더 찾게 될 것이라 이야기 한다. 지금 이 순간 자녀를 알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몰래 살피기를 지속하기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한국의 엄마들이 청소년 자녀를 모니터링하며 가장 내적으로 갈등한 영역은 자녀의 공부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학습과 성적에 대해 마음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사회에서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부모에게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성공의 핵심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공부에 매진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핵심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Doepke & Zilibotti, 2019). 따라서 좋은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특히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결과(통계청, 2019)는 학업에 대한 강조와 밀착된 모니터링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한다. 이에 따라 부모들에게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역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지 못할 때 가장 크게 드러난 특징이 공부강요였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학습이기 때문이다. 공부로 인한 내적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은 학벌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에 대한 내적 갈등이 심하고, 이로 인해 자녀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부모교육 등 전문가의 힘을 빌려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모니터링과 관련된 확장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 모니터링 연구에서 사용된 모니터링 척도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먼저는 척도가 측정하고 있는 모니터링의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모니터링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부모의 모니터링 지식 측정문항은 연구배경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루틴 모니터링을 통해 얻게 된 모니터링 지식에 한정되어 있다. 자녀가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언제 귀가할 것인지가 그 내용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루틴 외에도 친구관계, 학교나 학원생활, 성적, 진로에 대한 고민, 휴대폰 사용 등 다양한 영역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 특별히 자녀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루틴모니터링은 모든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니터링 영역으로 밝혀져, 루틴모니터링을 통해 획득한 지식만으로는 부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 모니터링 혹은 모니터링 지식을 측정하는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측정한다면, 부모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모니터링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질적도구가 개발된다면 모니터링 연구에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 예로, 본 연구결과에서

자녀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엄마는 그 옆에서 시간을 보내는 연구참여자는 양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지를 측정한다면 '자녀의 공부를 옆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마치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니터링하며 '감시'하는 것처럼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까이 들여다보면 자녀와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거실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습관이 형성된 것이며, 따로 성적에 대해 강요하는 모습이 없기에 이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양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측정할 경우, 놓치게 되는 정보들이 많고 왜곡된 자료가 수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도구를 개발한다면 모니터링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유형을 나누거나 건강한 모니터링을 제안하는 등 모니터링 연구에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실제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엄마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안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강요하다가는 자칫 과잉간섭으로 이어져 자녀의 자율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LeMoyne & Buchanan, 2011), 반대쪽 극단에서 자녀의 독립성만을 강조하고 완전한 자율성을 허용한다면 자녀의 비행이나 위험을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Lac & Crano, 2009; Lee & Randolph, 2015). 자녀를 안전한 경계 안에서 지키는 것과 독립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자녀의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녀가 독립된 존재인 동시에 청소년기는 자율성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정부기관인 사회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부모를 위한 웹사이트(the australian parenting website)"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모니터링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자녀의 책가방을 살필 때도 먼저 묻는 것', '병원에 갈 때

함께 갈 것을 원하는지 혹은 혼자 가길 원하는지 묻는 것'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생활에 대한 엄마의 기대와 자녀의 생각에 관해 명확히 대화를 나누고 규칙을 정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칙은 불필요한 '잔소리'와 자녀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재와 귀가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규칙은 기대와 행동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 자녀를 책망할 때에도 합당한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Hayes et al., 2007). 다만,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엄마의 강요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귀가시간과 소재파악과 관련된 것을 넘어 용돈사용, 휴대전화와 SNS사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살피기 위해 공식적인 루트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몰래 살피는 것은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제시한 청소년 자녀 모니터링 가이드에서는 몰래 살피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한다. 본 연구에서도 몰래 살피는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저 몰래 살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감시와 개입, 강요로 이어져 갈등이 되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정서와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 상 몰래 살피는 것이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과한 감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식적인 루트를 활용하며 살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 한 '자녀의 친구를 초대하기' 등은 자녀의 또래관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좋은 공식적인 루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녀와 지속적인 갈등이 생긴다면,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와의 경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한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발달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 형성된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출현하게 된다(Collins

et al., 1997). 어긋난 기대는 갈등을 양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기존에 엄마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를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기대로 변화하며 자녀와의 경계를 다시금 조정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연구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모니터링 변화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소수의 연구참여자가 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자녀의 학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모니터링 변화에 큰 차이를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자녀의 일상을 구조화할 수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부모가 생계를 이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하기에 자녀의 일상을 살피기 어려워진다고 밝혀져 왔다(손승영, 2009; Jones et al., 2003; Updegraff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양육하는 '부모자녀 동일체 의식'(이영미, 한재희, 2013)을 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해 많이 알고, 자녀를 더욱 잘 살피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도시에 살고 있었으며, 자녀의 일상에 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는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의지를 보인 연구참여자들을 면접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례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점은 고려하지 못했다. 한국사회에서 주로 어머니가 주양육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니

터링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변화양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면접 내용 중, 아버지는 주로 어머니를 통해 자녀에 대해 알게 된다는 이야기와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자 자녀의 학습에 무관심하던 아버지들도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이야기 등은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만의 독특한 모니터링 변화 과정을 겪을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모니터링이 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부모가 아는 것이 다인지는 알기 어렵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녀가 PC방 가는 것은 신용카드 내역으로 남기지 않는다며, 엄마가 자녀의 카드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노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를 함께 면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부모의 모니터링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양부모가정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 가족에서는 두 사람이 감당하던 자녀양육과 생계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부모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니터링 변화의 양상과는 그 내용이 확연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한 후속연구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이 모든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비행을 저지른다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녀의 문제행동은 부모로 하여금 모니터링 지식을 증가시키거나(조혜정, 윤명숙, 2010), 모니터링 지식을 감소시키는 등(Wertz et al., 2016; Willoughby& Hamza, 2011) 부모의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왔다. 따라서 자녀의 큰 문제행동을 경험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느 한 시점에 회고적 방식으로 어머니의 적응과정을 면접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세 번째 주요범주인 '대응의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엄마의 관점'에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은 종료된 과정이 아닐 수 있다. 분석을 통해 3가지 유형이 드러났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면접을 진행한다면 현재 갈등지속 유형으로 드러난 연구참여자들 또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겨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에 변화를 이루어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엄마들의 적응과정이 현재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시점에 면접하여 종단자료로 분석해본다면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유형을 더욱 명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가족센터(2022).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72C383/contents.do 에서 인출.

강버들(2020). 모가 경험하는 사춘기 자녀 양육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11**(4), 101-120.

공인숙, 이은주, 이주리(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925-936.

국립국어원(2022). 표준국어대사전(검색어: 감독),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A%B0%90%EB%8F%85 에서 인출.

권상인, 양지웅(2019). 어머니의 사춘기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내어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143-166.

김경민, 조은영, 송지은(2018).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1), 7-32.

김도영(2013).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과 교사애착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6), 315-336.

김병섭(2010). **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서울: 법문사.

김선희, 윤재희(2020). 부모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실천을 위한 고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1**(4), 193-221.

김소연(2017). 청소년기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한 '엄마 되기'. **질적탐구, 3**(1), 97-131.

김용석(2012). 한국어판 부모감독척도(Paretnal Monitoring Instrument)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8**, 5-37.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

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나유미, 임연진(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박영신(2010). 청소년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51-68.

박영신(2016). 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갈등의 특징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247-265.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박혜경(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6-33.

배재학(2021, 11.29).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긍정양육 129 원칙'.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9029009&wlog_tag3=naver.

배희분(2015). 부모가 청소년자녀의 삶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유익한가?. 최연실 외 지음. **한국가족을 말하다**(pp355-377). 서울: 하우.

서봉언, 김경식(2015). 남녀 집단에서 살펴본 청소년 비행과 부모감독의 종단관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1**, 88-109.

서정민(2013). 부모감독이 학교부적응과 청소년 비행경로에 미치는 매개효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인문사회과학연구, 38**, 139-169.

소수연, 안지영, 양대희, 김경민(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부모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247-279.

손승영(2009).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부모의 기대와 개

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57-84.
신지형, 김윤화(2018).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효식, 이경주(2001). 청소년자녀의 부모와의 갈등과 갈등표출방식. **대한가정학회지, 39**(1), 1-10.
윤초희, 최옥주(2020). 청소년 발달과 적응의 예측요인으로서 부모 자율성 지지와 구조 제공의 관계 탐색: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27**(12), 275-306.
이동성, 김영천(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이사라, 박지숙(2010). 학령기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8**(1), 1-14.
이영미, 한재희(2013). 모가 지각한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 극복경험. **상담학연구, 14**(2), 1401-1422.
이주아, 윤초희(2020). 부모 자율성지지 및 구조 제공과 자녀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119-147.
전상진, 정주훈(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정병삼(2010a).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정병삼(2010b).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친구 접촉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억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8**(2), 149-165.
정윤주(2014). 청소년기의 부모감독 변화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12.
조경진, 김은정(2009). 입시문화와 청소년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소년 또래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12**(2), 71-101.
조소연(2014). 부모의 지도감독 및 방임과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59-84.

조혜정, 윤명숙(2010). 부모감독과 청소년 음주의 상호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259-285.

조희연(2019). Winnicott과 Mahler 이론을 통해 본 유아의 독립과 어머니노릇에 대한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1), 257-276.

채경선, 정윤주(2015).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동기와 또래관계 기술과의 관계 연구. **문화교류연구, 4**(1), 31-51.

최귀순(2005).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4**(1), 82-90.

최미경(2017). 부모의 감독과 남고생의 긍정적 사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8), 105-133.

최연실, 배희분(2017).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0), 279-307.

최인재(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최정아, 이재림, 김영선(2021).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실천과 모-자녀관계의 재구성: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4), 157-185.

통계청(2019). **KOSTAT 통계플러스**.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2006). **가족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세영, 임혜은(2016). 부모감독과 부모의 또래인식이 남녀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5**(6), 695-709.

현정환(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홍국진, 이은주(2017).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동기의 종단적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1**(2), 305-326.

홍윤경(2021).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

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에 따른 다집단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3**(3), 109-147.

Aldous, K. (1978). *Family careers: Developmental change in families.* New York: Wiley.

Allen, K. R., & Henderson, A. C. (2016). *Family theories: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John Wiley & Sons.

Allen, K. R., & Henderson, A. C. (2017). *Family theories: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정유진, 유현경, 정혜정 옮김(2021). **가족이론: 기본 개념과 적용**. 서울: 학지사.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Bakken, J. P., & Brown, B. B. (2010). Adolescent secretive behavior: African American and Hmong adolescents′ strategies and justifications for managing parents′ knowledge about pee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2), 359-388.

Barnes, G. M., Hoffman, J. H., Welte, J. W., Farrell, M. P., & Dintcheff, B. A. (2006).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deviance on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1084-1104.

Benito Gomez, M., Williams, K. N., McCurdy, A., & Fletcher, A. C. (2020). Autonomy supportive parenting in adolescence: Cultural variability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2*(1), 7-26.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1), 162-186.

Boss, P., Doherty, W. J., LaRossa, R., Schumm, W. R., & Steinmetz, S. K. (Eds.). (1993).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NY: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ourdeau, B., Miller, B. A., Duke, M. R., & Ames, G. M. (2011). Parental strategies for knowledge of adolescents' friends: Distinct from monitor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6), 814-821.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J. Aronson.

Brown, B. B., & Mounts, N. S. (2007). The cultural context of family peer linkages in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7*(116), 1-15.

Bumpus, M. F., Crouter, A. C., & McHale, S. M. (2001). Parental autonomy granting during adolescence: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in context. *Developmental Psychology, 37*(2), 163.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Pacific Grove, CA: Brooks.

Bynum, M. S., & Kotchick, B. A. (2006).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nd autonomy as predictors of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5), 528-541.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옮김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부석의 실천 지침**. 서울: 학지사.

Chen, B., Vansteenkiste, M., Beyers, W., Soenens, B., & Van Petegem, S. (2013). Autonomy in family decision making for Chinese adolescents: Disentangling the dual meaning of autonom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7), 1184-1209.

Collins, W. A., Laursen, B., Mortensen, N., Luebker, C., & Ferreira, M.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Corbin, J., & Strauss, A. (2008). *Strategies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Corbin, J. & Strauss, A. (201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roy (4th ed).* 김미영, 정승은, 차지영, 강지숙, 권유림, 김윤주, 박금주, 서금숙 옮김(2019). **근거이론**. 서울: 현문사.

Cottrell Jr, L. S. (1942). The adjustment of the individual to his age and sex ro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7-620.

Cottrell, S. A., Branstetter, S., Cottrell, L., Harris, C. V., Rishel, C., & Stanton, B. F.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rental monitoring instrument: Measuring how parents monitor adolescents' activities and risk behaviors. *The Family Journal, 15*(4), 328-335.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옮김(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Deakin, H., & Wakefield, K. (2014). Skype interviewing: Reflections of two PhD researchers. *Qualitative Research, 14*(5), 603-616.

Deci, E. L., & Ryan, R. M. (1987). The support of autonomy and the control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024.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eVore, E. R., & Ginsburg, K. R. (2005). The protective effects of

good parenting on adolescents. *Current Opinion in Pediatrics, 17*(4), 460-465.

DiClemente, R. J., Wingood, G. M., Crosby, R., Sionean, C., Cobb, B. K., Harrington, K., ... & Oh, M. K. (2001). Parental monitoring: Association with adolescents' risk behaviors. *Pediatrics, 107*(6), 1363-1368.

Dishion, T. J., & McMahon, R. J.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rmul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 61-75.

Doepke, M., & Zilibotti, F. (2019). *Love, money, and parenting: How economics explains the way we raise our kids*. 김승진 옮김(2020). **기울어진 교육: 부모의 합리적 선택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서울: 메디치미디어.

Duvall, E. M. (1957).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Lippincott.

Fletcher, A. C., Steinberg, L., & Williams Wheeler, M. (200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evisiting Stattin and Kerr. *Child Development, 75*(3), 781-796.

Fousiani, K., Van Petegem, S., Soenens, B., Vansteenkiste, M., & Chen, B. (2014). Does parental autonomy support relate to adolescent autonomy? An in-depth examination of a seemingly simple ques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9*(3), 299-330.

Gavazzi, S. (2013). Theory and research pertaining to families with adolescents. In G. W. Peterson, & K. R. Bush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3rd edn, pp. 303-327). New York: Springer.

Galinsky, E. (1981). *Between generations: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New York, NY: TimeBooks.

Ginott, H. (1969). *Between Parent and Child.* New York: Avon.

Glaser, B. G.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s.* CA: Sociology Press.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IL: Aldine Publishing Company.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

Guilamo-Ramos, V., Jaccard, J., & Dittus, P. (2010). Expert Perspectives on Parental Monitoring. In Guilamo-Ramos, V., Jaccard, J., & Dittus, P. (Eds.). *Parental monitoring of adolescents: Current perspective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Hawk, S. T., Becht, A., & Branje, S. (2016). "Snooping" as a Distinct Parental Monitoring Strategy: Comparisons With Overt Solicitation and Contro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6*(3), 443-458.

Hawk, S. T., Keijsers, L., Frijns, T., Hale III, W. W., Branje, S., & Meeus, W. (2013).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Parental privacy invasion predicts reduced parental knowledge. *Developmental Psychology, 49*(7), 1286.

Hawk, S. T., Keijsers, L., Hale III, W. W., & Meeus, W. (2009). Mind your own business!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rivacy invasion and adolescent-parent confli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4), 511.

Hayes, L., Hudson, A., & Matthews, J. (2007). Understanding parental monitoring through analysis of monitoring episodes in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Consultation and Therapy, 3*(1), 96.

Hoff, E., Laursen, B., Tardif, T., & Bornstein, M.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In Bornestein, M. H. (Eds.),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Vol. 2, pp. 231-25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rvine, A., Drew, P., & Sainsbury, R. (2013). 'Am I not answering your questions properly?'Clarification, adequacy and responsiveness in semi-structured telephone and face-to-face interviews. *Qualitative Research, 13*(1), 87-106.

Jaccard, J., Guilamo-Ramos, V., Bouris, A., & Dittus, P. (2010). A Three-Process System of PArental Monitoring and Supervision. In Guilamo-Ramos, V., Jaccard, J., & Dittus, P. (Eds.). *Parental monitoring of adolescents: Current perspective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Jiménez-Iglesias, A., Moreno, C., García-Moya, I., & Ramos, P. (2013). How can parents obtain knowledge about their adolescent children?. *Journal for the Study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36*(2), 181-197.

Jones, D. J., Forehand, R., Brody, G., & Armistead, L. (2003). Parental monitoring in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headed families: An ecological approach to the identification of predictors. *Behavior Modification, 27*(4), 435-457.

Joussemet, M., Landry, R., & Koestner, R. (2008).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Parenting. *Canadian Psychology, 49*(3), 194.

Keijsers, L., Voelkle, M. C., Maciejewski, D., Branje, S., Koot, H., Hiemstra, M., & Meeus, W. (2016). What drives developmental change in adolescent disclosure and maternal knowledge? Heterogeneity in within-family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52(12), 2057.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

Kerr, M., Stattin, H., & Burk, W. J. (2010). A reinterpretation of parental monitoring in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39-64.

Klein, D. M., & White, J. M. (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김종천 외 옮김(2000). **가족이론**. 서울: 대학출판사.

Lac, A., & Crano, W. D. (2009). Monitoring matters: Meta-analytic review reveals the reliable linkage of parental monitoring with adolescent marijuana us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6), 578-586.

Laird, R. D., & Marrero, M. D. (2010). Information management and behavior problems: Is concealing misbehavior necessarily a sign of trouble?. *Journal of Adolescence, 33*(2), 297-308.

Laird, R. D., Marrero, M. D., & Sentse, M. (2010). Revisiting parental monitoring: Evidence that parental solicitation can be effective when needed mos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2), 1431-1441.

Laird, R. D.,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2003). Change in parents' monitoring knowledge: Links with parenting, relationship quality, adolescent beliefs, and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2*(3), 401-419.

Lareau, A. (2011).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박성은 옮김(2012). **불평등한 어린시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의 대물림**. 서울: 에코리브르.

Lee, J., & Randolph, K. A. (2015).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n aggressive behavior among youth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 cross-nation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5*, 1-9.

LeMoyne, T., & Buchanan, T. (2011). Does "hovering" matter? Helicopter parenting and its effect on well-being. *Sociological Spectrum, 31*(4), 399-418.

Lerner, R. M., & Steinberg, L. (Eds.). (2009).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3rd ed.), volume 2: The contextual influen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Lionetti, F., Palladino, B. E., Moses Passini, C., Casonato, M., Hamzallari, O., Ranta, M., ... & Keijsers, L. (2019). The development of parental monitoring during adolescence: A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5), 552-580.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이재훈 옮김(1997). **유아의 심리적 탄생: 공생과 개별화**.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Marshall, S. K., Tilton-Weaver, L. C., & Bosdet, L. (2005). Information management: Considering adolescents' regulation of parental knowledge. *Journal of Adolescence, 28*(5), 633-647.

Mattessich, P., & Hill, R. (1987). Life cycle and family development.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437-469). Boston, MA: Springer.

McArthur, A. (1962). Developmental tasks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2), 189-191.

McElhaney, K. B., Allen, J. P., Stephenson, J. C., & Hare, A. L.

(2009).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Individual bases of adolescent development* (pp. 358 - 403). NJ: John Wiley & Sons.

Moilanen, K. L., Shaw, D. S., Criss, M. M., & Dishion, T. J. (2009). Growth and predictors of parental knowledge of youth behavior during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6), 800-825.

Novick, G. (2008). Is there a bias against telephone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1*(4), 391-398.

O'Donnell, P., Richards, M., Pearce, S., & Romero, E. (2012). Gender differences in monitoring and deviant peers as predictors of delinquent behavior among low-income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2*(3), 431-459.

Parkin, C. M., & Kuczynski, L. (2012). Adolescent perspectives on rules and resistance with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7*(5), 632-658.

Peterson, G. W., & Bush, K. R. (2013). Introduction: Balancing connectedness and autonomy in diverse families. In G. W. Peterson, & K. R. Bush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3rd edn, pp. 303-327). New York: Springer.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Pettit, G. S., Keiley, M. K., Laird, R. D., Bates, J. E., & Dodge, K. A. (2007). Predicting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other-reported

monitoring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from early proactive parenting, child temperament, and parents' worr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2), 206-217.

Rai, A. A., Stanton, B., Wu, Y., Li, X., Galbraith, J., Cottrell, L., ... & Burns, J. (2003). Relative influences of perceived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ived peer involvement on adolescent risk behaviors: An analysis of six cross-sectional data se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3*(2), 108-118.

Ramirez, J. R., Crano, W. D., Quist, R., Burgoon, M., Alvaro, E. M., & Grandpre, J. (2004). Acculturation, familism, parental monitoring, and knowledge as predictors of marijuana and inhalant use in adolesc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8*(1), 3.

Rodgers-Farmer, A. Y. (2001).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group association: Their influence on adolescent substance us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7*(2), 1-18.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심경림, 김미영 옮김(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Sedgwick, M., & Spiers, J. (2009). The use of videoconferencing as a medium for the qualitative int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8*(1), 1-11.

Seyfried, S. F., & Chung, I. J. (2002). Parent involvement as parental monitoring of student motivation and parent expectations predicting later achievement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middle school age students. *Journal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11*(1-2), 109-131.

Smetana, J. 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5), 1052-1067.

Smetana, J. G., Campione Barr, N., & Daddis, C. (2004). Longitudinal development of family decision making: Defining healthy behavioral autonomy for middle class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5*(5), 1418-1434.

Smetana, J. G., & Rote, W. M. (2015). What do mothers want to know about teens' activities? Levels, trajectories, and correlates. *Journal of Adolescence, 38*, 5-15.

Smetana, J. G., Villalobos, M., Tasopoulos-Chan, M., Gettman, D. C., & Campione-Barr, N. (2009).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disclosure to parents about activities in different domains. *Journal of Adolescence, 32*(3), 693-713.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33.

Son, I. B., & Choi, J. A. (2013). Parental knowledge trajectory and its relationships with parental warmth and adolescent disclosure for Korea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9), 1643-1649.

Steinberg, L. (1999). *Adolescence* (5th ed.). Boston : McGraw-Hill College.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 - 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Tilton-Weaver, L. (2014). Adolescents' information management: Comparing ideas about why adolescents disclose to or keep secre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5), 803-813.

Tilton Weaver, L. C., & Galambos, N. L. (2003). Adolescents′ Characteristics and Parents′ Beliefs as Predictors of Parentsapos; Peer Management Behavio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3), 269-300.

Tilton-Weaver, L., Kerr, M., Pakalniskeine, V., Tokic, A., Salihovic, S., & Stattin, H. (2010). Open up or close down: How do parental reactions affect youth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Adolescence, 33(2), 333-346.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Updegraff, K. A., Perez Brena, N. J., Baril, M. E., McHale, S. M., & Umaña Taylor, A. J. (2012). Mexican origin mothers′ and fathers′ involvement i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 pattern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5), 1069-1083.

Van der Giessen, D., Branje, S., Keijsers, L., Van Lier, P. A., Koot, H. M., & Meeus, W. (2014). Emotional variability dur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interactions: Longitudinal links to adolescent disclosure and maternal control. *Journal of Adolescence, 37*(1), 23-31.

Van Petegem, S., Vansteenkiste, M., & Beyers, W. (2013). The jingle-jangle fallacy in adolescent autonomy in the family: In search of an underlying structur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7), 994-1014.

Waizenhofer, R. N., Buchanan, C. M., & Jackson-Newsom, J. (2004). Mothers' and fathers' knowledge of adolescents' daily activities: its sources and its links with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2), 348.

Wertz, J., Nottingham, K., Agnew-Blais, J., Matthews, T., Pariante, C. M., Moffitt, T. E., & Arseneault, L. (2016). Parental monitoring and knowledge: Testing bidirectional associations with youths'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8*(3), 623-638.

White, J., Klein, D., & Martin, T. (2015).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4th ed.)*. CA: Sage publications.

Williams, A. (2003).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parent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2*(1), 58-65.

Willoughby, T., & Hamza, C. A. (2011).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bidirectional associations among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 disclosure and problem behavior across the high school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4), 463-478.

Wuyts, D., Soenens, B., Vansteenkiste, M., & Van Petegem, S. (2018). The role of observed autonomy support, reciprocity, and need satisfaction in adolescent disclosure about friends. *Journal of Adolescence, 65*, 141-154.

Yu, J. J. (2011). Reciprocal associations between connectedness and autonomy among Korean adolescents: Compatible or antithetica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4), 692-703.

Zimmer-Gembeck, M.J., & Collins, W.A. (2003). Autonomy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In G. R. Adams & M. Berzonsky (Eds.),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pp. 175-204). Oxford:

Blackwell Publishers.

[부록 1] 면접 지침

<1차면접: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

1. 엄마와 자녀의 관계
 (1) 평소에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 자녀와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세요?
 (3) 자녀에 대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세요?
 (4) 자녀와 갈등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5) 아들이라서, 혹은 딸이라서 좀 다른 것도 있을까요?

2.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 후 관계의 변화
 (1) 언제부터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것 같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2)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3) 자녀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엄마가 부모로서, 또 개인(사람)으로서 변화된 점이 있으셨나요?

3. 원가족
 (1) 어머님의 원가족은 어떤 분위기였나요?
 (2) 양육 받은대로 양육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4. 부모교육
 (1) 부모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 추가질문 예시: 어떤 계기로 받게 되셨나요? 얼마나 자주 받으셨나요? 어떤 효과가 있으셨나요?

5. 지역사회 및 이웃
 (1) 아이의 또래 엄마들이랑 자주 만나시나요?
 (2) 학교에는 자주 찾아가시나요?

6. 아빠와 자녀의 관계
 (1) 평소에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아빠와 자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나요?

<2차면접: 모니터링 변화>

1. 엄마의 모니터링

(1) 자녀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 추가 질문 예시: 자녀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나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하시나요? 스케줄 관리도 하고 계신가요? 자녀 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자녀의 학업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가요? 집에 있을 때는 어떤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나요? 이성친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싶은 영역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2. 엄마의 모니터링 변화

(1)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볼 때, 자녀를 모니터링 하는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 왔나요?

(2) 왜 달라지셨나요? 계기가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3) 달라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4) 자녀의 청소년 초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니터링의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바꿔서 해보고 싶으세요?

(5)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엄마의 모니터링이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머님의 현재 변화와 상관없이)

(6) 어디까지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알고 관여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3. 아빠의 모니터링과 변화

(1) 아빠는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2)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해 온 부분이 있나요?

[부록 2] 인구사회학적 정보 조사 양식

IRB No. 2006/003-015 **유효기간: 2021년 06월 15일**

일반적인 사항

ID: _____ 작성일자: _____

아래의 질문들은 귀하의 간단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들을 잘 읽어 보시고 빈칸을 채우거나 적절한 곳에 동그라미표 해주세요.

1. 귀하는 언제 태어나셨나요? _____년 _____월

2.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① 결혼유지
   ② 동거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기타 (_____)

3. 귀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모두 동그라미 하여 주세요.
   ① 남편
   ② 친정어머니
   ③ 친정아버지
   ④ 시어머니
   ⑤ 시아버지
   ⑥ 자녀
   ⑦ 기타 다른 사람 (_____)

4. 귀하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 _____명

5. 귀하의 자녀는 언제 태어났고,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첫 째: _____년 _____월 , (남 , 여)
   ② 둘 째: _____년 _____월 , (남 , 여)
   ③ 셋 째: _____년 _____월 , (남 , 여)
   ④ 넷 째: _____년 _____월 , (남 , 여)
   ⑤ 다섯째: _____년 _____월 , (남 , 여)

6.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_____

만일 전업주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6-1. 근무형태와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로 일한다.
②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_____시간
③ 재택근무로 일한다. _____시간

7. 귀하의 가족의 한 달 수입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⑨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8.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혹은 다니고 계신가요?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2,3년제)
⑥ 대학교(4년제)
⑦ 대학원 이상

8-1. 귀하는 위의 학교를 졸업하셨나요?
① 졸업했다
② 중퇴했다
③ 현재 다니고 있는 중이다
④ 현재 휴학중이다

여기서부터는 <u>배우자에 대한 질문</u>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여기서 응답을 그만두시면 됩니다.

9. 귀하의 배우자는 언제 태어나셨나요? _____년 _____월

10. 귀하의 배우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_____

만일 전업주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10-1. 근무형태와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로 일한다.
②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_____시간
③ 재택근무로 일한다. _____시간

11. 귀하의 배우자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혹은 다니고 계신가요?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2,3년제)
⑥ 대학교(4년제)
⑦ 대학원 이상

11-1. 귀하의 배우자는 위의 학교를 졸업하셨나요?
① 졸업했다
② 중퇴했다
③ 현재 다니고 있는 중이다
④ 현재 휴학중이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IRB No. 1908/001-008 **유효기간: 2021년 07월 27일**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과 제 명 :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과정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양경선(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이 연구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 기준(첫 자녀가 국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양경선 연구원(010-3363-5341)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따라 부모의 모니터링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첫 자녀가 국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어머니 30명(남학생 어머니 15명, 여학생 어머니 15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약 60분~120분간 진행되는 면접에 최소 2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두 번째 면접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면접은 귀하가 동의해 주신다면 녹음할 것입니다.
2) 면접이 모두 끝나면, 인구사회학적인 정보를 묻는 설문지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설문에는 약 3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와 미리 약속하여 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2회의 면접과 설문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허락을 구한 후, 다시 면접일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인터뷰는 2-3회 정도 실시되는데, 1회 당 60분-12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연구참여자가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탈락 이전 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연구참여에 따른 특별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자녀 관계나 모니터링에 대해 회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불쾌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면접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양경선(010-3363-5341)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를 위한 단순 연락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양경선 연구원과 지도교수인 Grace H. Chung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비밀번호를 설정한 파일로 암호가 설정된 연구자의 개인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1회 면접을 마칠 때마다 교통비 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30,000원이 지급될 것이며 2회의 면접에 모두 참여하시면 총 6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2회의 면접이 종료된 이후, 추가 면접이 진행될 경우, 1회 당 3만원의 실비가 추가로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면접 진행 중에 연구참여를 그만두시면 해당 면접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양경선 전화번호: 010-3363-5341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 제 명 :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과정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양경선(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과 녹음된 내용이 파일로 저장되어 보관되고, 전사하여 문서로 만들어져 보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부록 4]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IRB No. 1908/001-008 유효기간: 2021년 07월 27일

연구참여자 모집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화 과정 연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1. 참여조건 첫 자녀가 국내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어머니 (총 30명)

2. 참여방법
① 참여를 원하면, 연구자에게 연락합니다.
② 총 2회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회 당 60분-120분 소요)
③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약 3분 소요)

3. 참여혜택 2회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면, 6만원의 실비를 사례로 드립니다. (1회 면접을 마칠 때마다 3만원 지급)

4. 연락처 연구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거나,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양경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휴대폰: 010-3363-5341
이메일: yks1015@snu.ac.kr

※ 인터뷰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화상면접, 전화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의 박사논문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Version 2.1(2020.06.16.)

Abstract

The process of mothers' adaptation to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monitoring change

Yang, Kyungsu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of mothers' adaptation to the developmental changes of adolescent children, focusing on the changes in mothers' monitoring, and to construct a theory. By doing so, the study intended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parental monitoring and to provide information to help parents change their parenting behavior in a healthy mann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0 mothers whose first child was in the first year or the second year of high school, and a grounded theory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ther's adaptation process to her children's changes was composed of three themes. First, the children who entered adolescence increased the need for privacy and autonomy. These changes conflicted with the existing monitoring method of their mothers, which led to conflict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Second, the changes in the monitoring method of mothers started from such conflicts with their children. Mothers changed the monitoring method as a countermeasure to

avoid conflic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elf-disclosure of their children, mothers acknowledged their children's thoughts and behaviors, and chose to ask indirectly, spying on their children and pretending not to know. The mothers used structured environments or actively created structured environments, and constantly tried to figure out where their children were and when they were coming home. Also, mothers constantly experienced internal conflicts over their children's studying. Third, the results of the mothers' response to conflicts, which were revealed by the change in monitoring method,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mothers' perspectives on their children. Mothers belonging to the "viewing children as an independent person" type viewed their children as an independent person. As they went through the process of changing the monitoring method, conflicts with their children were resolved and their relationship progressed. Mothers belonging to the "imposing the mother's standard" type viewed their children as their own possessions, and the conflict continued as they imposed the mothers' standards on their children. These conflicts were particularly prominent in the children's studying. Third, mothers belonging to the "experience frustration and stop forcing" type imposed their own standards on their children in regard to the study but realized that forcing them does not produce good results and only worsens relationships. The mothers experienced frustration and viewed their children as independent individuals. In this process, parent education was what helped mothers implement changes more easily. This study found that the core category encompassing the three central themes was "going from conflict to relationship change through viewing children as independent individuals." Children's developmental changes and conflicts with children led to changes in monitoring methods. In order for these monitoring methods changes to lead to changes in relationships, such as resolving conflicts with children and increasing the level of self-disclosure, it is important for mothers to

have a view of their children as independent individual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result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for parents to be individualized from their children with the perspective of viewing their children as an independent person in order for mother's monitoring method changes to lead to healthy changes in relationships beyond temporary avoidance of conflicts. Second,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mothers' adolescent child monitoring method and autonomy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 Third, the importance of parent education for parents of adolescent has been confirmed in this study. Fourth, this study has identified specific monitoring strategies of mothers to monitor their adolescent children. Through this, previous limitation of the adolescent child monitoring study, which lacks understanding of specific monitoring strategies, are supplemented. Fifth, the present study points to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existing scales used for monitoring research in South Korea. Sixth, this study offers practical monitoring tips for mothers of adolescent children. Seventh, unlik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no difference was found in the mother's adaptation proces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nd two possibilities are suggested. First, socioeconomic status may no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because of the culture that recognizes parents and children as identical in South Korean society. Also, since this study is based on voluntary research particip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only mothers who are actively raising their children participate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nd follow-up studies are suggested.

Keywords : parental monitoring,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children as independent individuals, mothers' adaptation process to their children's development, grounded theory

Student number : *2015-31159*